소년단

195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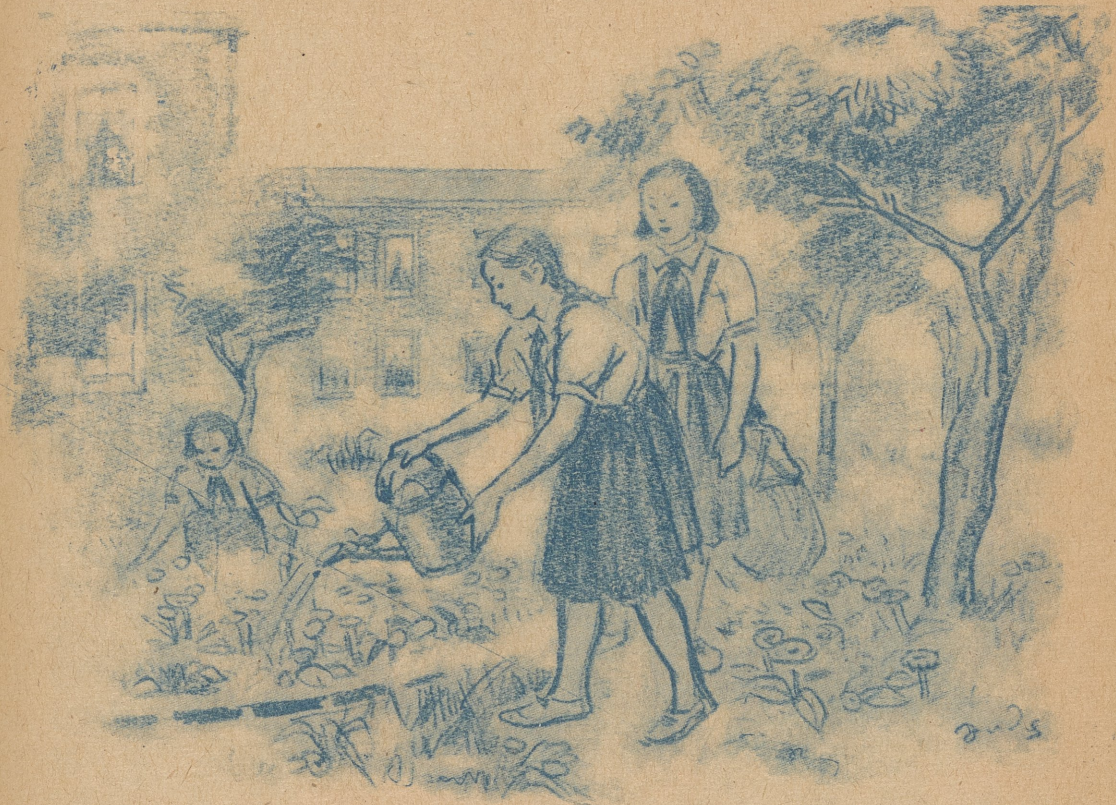
바다는 부른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인민 학교에서부터 바다에 대한 지식을 배워 주며 바다에 대한 동경심과 거기에서 씩씩하게 일하려는 정신을 배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김 일 성)

(상) 축구도 즐기지만 수구를 더 좋아하는 소년 단원들.

(좌) 물 속에서 숨박꼭질은 정말 재미있어.

(우) 뽀드 경기 시작을 알리는 수기 신호수.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59년 7호 내용

국립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에서 (4회) 리 호일

김 일성 원수와 인민들

하얀 눈에 덮인 밀림속 오솔'길 헤치고
난덕이 구장은 유격대를 찾아 왔습니다.
미시'가루 일흔자루, 감자 다섯 토리
지양개 농민들 유격대 겨울 량식 마련해 왔습니다.

원수님이 난덕이 구장의 손을 굳게 잡으시는
유화 앞에서 우리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드시
항상 인민 혁명군은 인민들과 함께 살며 싸운
것을…

국내 혁명 운동의 공작 임무를 주시는 김 일성 원수

눈은 내리여 장백현 19도구를 덮어도
삼개는 봄이 온듯 봄 별이 가득 찼습니다,
거기 밀림 속에 김 일성 원수 계시였기에。

혁명 투사 박 달 동지를 만나시고
조국 광복회 조직에 대하여
국내 혁명 운동의 투쟁 방침에 대하여
공작 임무를 주시는 원수님의 말씀에
벌써 조선의 봄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지키어 수 많은 애국 투사들
얼마나 간고한 나날을 싸워 왔습니까
아, 영광스런 로동당 시대의 꽃봉오리들
그 빛나는 혁명 전통 길이 이어 갑니다.

밀림 속의 5. 1 절

서리'발 총창을 비껴든듯
밀림도 엄숙히 일어섰는데.
뜨거운 눈'길 모두어 우러르는
항일 빨찌산 강철의 대오 앞에

김 일성 장군은 거연히 서 계시더라
어두운 숲 속에 태양이 솟은 듯
그이는 소리 높이 가리키시더라
5월의 기'발이 휘날리는 미래를—

밀림 속에 5월이 수천년 흘러 가도
항일 용사들의 가슴에 불씨를 안기며
그이 부른 5월의 노래는 영원하리라.
—만국의 로동자여 단결하라
제국주의 침략자를 때려부시자—

희샤즈거우 밀영지

넓고 넓은 만주 벌판 울창한 밀림에
혁명의 밀영지는 그 얼마 입니까
우리는 희샤즈거우 밀영 사진 앞에
간고한 지난날을 회상하며 섭니다.

별'빛이 새여 드는 귀틀집에서
기름'불 심지를 돋구어 가며
레닌을 배우며 밤을 밝히시는
원수님의 모습이 선히 떠오릅니다.

비'바람 모지고 눈보라 쳐도
언제나 레닌의 사상에 충실한 김 일성 원수
그이의 사상을 배워 손'길 따라
우리 모두 공산주의 미래로 나아 갑니다.

비둘기가 물고온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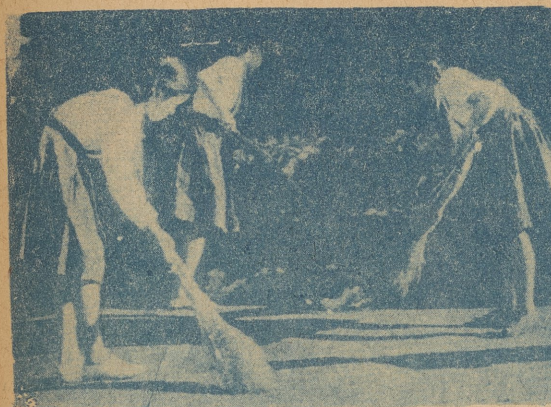
소년단원 동무들!

영광스러운 민주 수도 평양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고 있는 소년 록화 근위대, 소년 위생 근위대원들의 자랑찬 활동 모습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경상'골 아동 공원을 찾아 갔을 때였습니다. 평양 남신 중학교 소년 록화 근위대원들은 이곳을 찾아 즐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이 모인 앞에서 해설 ·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아 공산주의 문앞에 들어 서게 되는 우리들은 보다 문화적으로 휴식하며 생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거리와 마을이 장차 공산주의 사회에 어울리도록 가는곳 마다에 아름다운 공원과 문화적 휴식터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이런 모습은 비단 이곳뿐 아니라 극장 영화관 뻐스 안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난 나는 온갖 꽃들이 활짝 핀 남산 공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공원을 담당한 남산 고급 중학교 소년 록화 근위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병충을 없애기 위해 나무 그루에 약을 뿌리고 있었고 어떤 동무들은 꽃밭에 물을 주며 또 다른 동무들은 주변을 깨끗이 쓸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자기 집에서도 화단을 잘 가꾸고 있는 김 옥자, 리 형일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이 학교 록화 근위대원들은 쿠르쇼크를 조직하여 중구역 록화 사업소 정 홍근 아저씨를 모셔다가 공원 관리와 원예 기술까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록화 근위대 대장 동무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공원을 가꾸면서 우리들의 지식을 넓힐뿐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키우고 있단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원에다 형제나라 어린이들로부터 보내온 갖가지 꽃씨를 뿌려 아름다운 <친선의 화단>을 만들겠어…》 그러면서 앞으로의 훌륭한 전망도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이들과 헤여저 대동강 유보도를 따라 날고 있든 나는 평양 종로 중학교 소년 위생 근위대원들과 만났습니다. 이들은 학교 도로, 아빠트 주변들에 있는 웅덩이를 메우고 불결한 변소 오물 적치장들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7반 동무들은 유서 깊은 고적 대동문과 련광정 부근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으며 포충망을 들고 파리 모기 잡이에도 열성이였습니다. 이 학교 소년 위생 근위대 대장 안 민옥 동무는 《우리는 맡은 구역을 한 마리의 파리, 모기, 쥐도 없고 항상 깨끗한 모범 구역으로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구역을 수시로 돌아 다니면서 위생 검열도 하고 간단한 촌극 재담도 만들어서 낡은 습관을 고치도록 활동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벌써 근위대 벽보 석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랭수 마찰을 하고 집 안팎을 깨끗이 거두고 있는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무는 개체 위생을 참 잘 지키고 있는데…》라고 말 했드니 《근위대원이 우선 모범을 보여야지》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동무가 바로 종로 중학교에서도 모범 위생 근위대원으로 이름난 윤 택규 동무였습니다. 이 밖에도 내가 본 근위대원들의 활동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소년단원들과 소년 록화 근위대 및 소년 위생 근위대원 동무들! 근위대의 자랑스러운 칭호와 영예를 더욱 빛내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활동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를 온갖 꽃들이 활짝 피게 하고 싱싱한 풀과 나무들로 푸르게 하고 과실이 무르익고 단풍 우거진 아름다운 나라로 꾸려갑시다. 그리하여 그 어디서나 깨끗하고 행복한 웃음과 명랑한 생활이 넘쳐 흐르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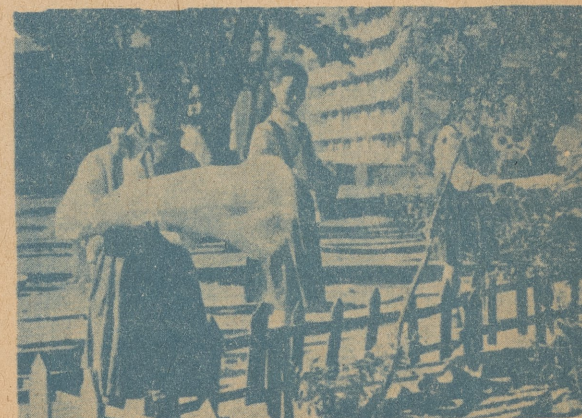
빨찌산의 딸 (제3회)

글 조정철

그림 오영복

처음에는 많이 모여 들지도 않았으나 몇몇 군인들이 모였다 하드라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러나 차츰 구경하는 사이에 재미가 났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구경'군들도 점점 늘어갔다. 나중에는 집 구석에서 아편을 빨던 사람들 까지도 모두 나와 구경하는 것이였다.

유희가 끝나자 유희대 책임자는 연설을 시작하였다.

그는 류창한 중국 말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동북으로 쳐 들어 온 원인을 폭로하고 조선 사람들이 왜 동북에 와 살게 되였으며 우리 유격대가 지금 어떻게 왜놈과 싸우고 있는가를 똑똑히 설명하여 주었다. 그러면서 같은 설음과 목적을 가진 조선 사람과 중국 사람들은 서로의 원쑤가 아니며 우리의 원쑤는 바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공동의 원쑤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힘 있게 말하였다.

이 말을 듣는 중국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중의 몇몇 사람들은

《옳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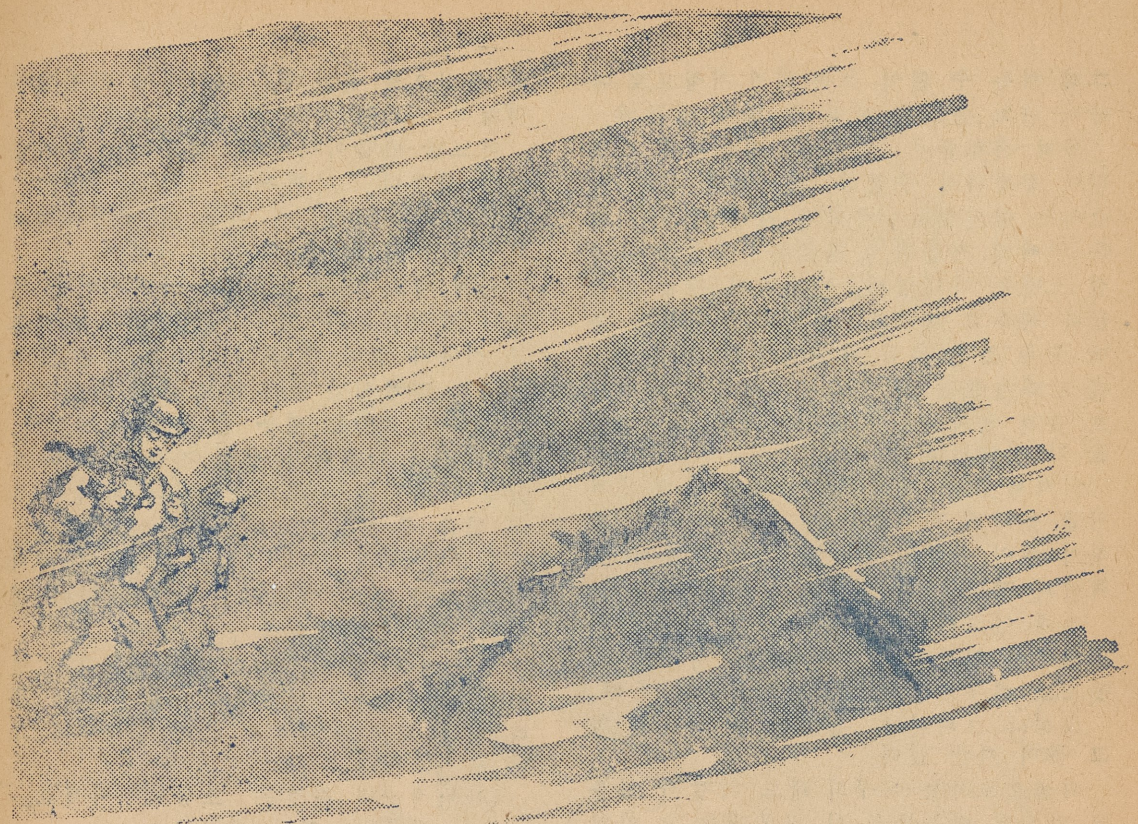
《정말 그렇다!》

이렇게 소리까지 지르며 감격된 눈으로 우리 아동단원들을 새삼스럽게 바라 보기까지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도 사람인가?》하고 한탄하며 자기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의 자기들의 그릇된 행동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 하였다.

유희와 연설이 끝나자 모든 병사들은 아동단원들에게로 달려 와서 감격한 나머지 그들을 그러안아도 주며 등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며 배낭에서 맛 있는 과자나 어여쁜 장난감 같은 것들을 꺼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한결 같이 다음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였다.

헤여질 때 병사들은 아동단원들을 멀리

까지 바래다 주기까지 하였다.

이렇듯 아동단원들은 김 일성 원수의 따뜻한 사랑과 직접적인 교양 속에서 래일의 믿음직한 혁명 투사로 자라났다.

어머니와 동생의 원쑤를 어서 갚아 주어요

일본 제국주의 놈들은 동북을 몽땅 삼켜 버리고 다시 아세아 전체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놈들은 대륙 침략과 함께 눈의 가시처럼 미워하던 우리 유격대를 단숨에 없애 버리려고 날뛰였다.

놈들은 매일처럼 유격 근거지도 아닌 산림 지대까지 대 부대를 몰아 쳐들어 왔다. 그리고는 온 지역의 집과 량식을 불살아 버리고 닥치는 대로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놈들은 다시 유격 근거지를 둘러 싸고 다른 고장과 통련락도 할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유격 근거지 안에서는 식량 때문에 큰 곤난을 받게 되였다.

먹을 량식도 입을 옷도 없어졌다. 게다가 놈들의 《토벌대》는 매일 같이 처들어 왔다. 그렇지만 죽어도 나라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놈들이 제아무리 탄압을 해도 굴하지 않고 그냥 유격 근거지 안에 남아 있었다.

그러니 그 고통이야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었겠는가! 인민들은 일년을 가도 신 한번 벗고 자볼 수가 없었고 상 한번 펴고 밥 먹어 볼 수가 없었다.

밥은 말고 죽쑤어 먹을 낟알도 없었다. 그리하여 인민들은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를 캐여 먹으면서 용감히 싸웠다. 그러면서도 유격 근거지의 사람들은 조그만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그를 우선 유격대에 보내군 하였다.

만금어가 어머니를 여윈 것도 이때 이 고장에서 였다. 유격대가 되여 왜놈 군대와 싸우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며 조국 광복의 휘황한 앞날을 바라며 갖은 고생을 참고 견디어 오던 만금 어머니는 이때 종시 원쑤의 손에 무참히 희생되고야 말았다.

어머니를 잃어 버린 어린 만금이는 집마저 태워 버리우고 의지할 곳도 없게 되였다.

그래 하는 수 없이 그는 이집 저집으로 다니며 남의 손에서 지낼 수 밖에 없었다.

동리 사람들은 가엾은 만금이를 한결같이 동정하여 주었다. 어머니를 잃은 만금이는 인민들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더욱 억세게 자랐다. 만금은 단순한 나어린 소녀는 아니였다. 아버지가 지금 왜놈들과 싸우고 계시고 어머니가 원쑤의 손에 죽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원쑤를 갚고 왜놈들을 쳐 물리칠 때까지는 죽어도 유격 근거지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만금이였다.

이처럼 일본 제국주의 놈들은 유격 근거지를 봉쇄해 버리고는 대 부대를 몰아 쉴사이 없이 쳐들어 왔지만 그러나 우리 유격대의 세력은 그 반대로 날로 더 커갔다.

그때 안도현 처창즈에 유격 근거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안 왜놈들은 여러번 그곳으로 대부대를 거느리고 쳐들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놈들은 큰 타격을 받고 쫓겨 가군 했다.

싸움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음을 알게된 왜놈들은 이 지구에도 그 악착한 《봉쇄 정책》을 쓰게 되였다.

놈들은 우선 유격 근거지 부근에 있는 산림과 촌락을 모조리 불사르고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나머지 인민들을 몰아다가 열자가 넘는 토성을 쌓고 그 네 모퉁이 마다 포대를 만든 말하자면 토성 안에서만 살게 하였다.

그것을 놈들이 말하기를 《집단 부락》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옴짝 달싹 못하게 만든 감옥과 같은 것이였다. 토성에는 밤낮 보초를 세워 다른 부락과 련락을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언제든지 군사 행동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 부락》까지 신작로를 닦아 놓았던 것이다.

이때 《처창즈》는 이러한 《집단 부락》으로 포위되였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과는 통 련락을 가질 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1935년에 이르러서는 식량 사정이 말할 수 없이 곤난하여 졌다. 그러나 인민들은 오직 조국 광복의 그날을 굳게 믿었으며 그로하여 모든 곤난을 이겨 나갔다. 인민들은 혹심한 고통이 닥쳐 올 때마다 이 고생은 오직 더 잘 살기 위한 고생으로 여겼고 혁명은 반드시 승리 한다는 굳은 신심으로 불탔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는 더욱 더 높아만 갔다.

어느날 만금이에게는 뜻밖에도 반가운 일이 생겼다.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다. 아버지의 부대가 때 마침 이 처창즈라는 고장을 지나가게 되였던 것이다.

이때 몇해 만에 돌아 온 아버지인들 얼마나 놀랐겠는가. 몇해 동안 감감 소식으로 지나다 돌아 와 보니 안해와 작은 딸은 죽었고 만금이만 남아 앓고 있지 않는가…

이때 만금이는 열두 살 난 처녀애였다. 자기 딸이 이랬던가 싶게 자란 모습을 보았을때 아버지는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였다.

만금이 역시 자나 깨나 기다리던 아버지 였건만 진작 아버지! 하고 내달아 반가히 맞을만한 기운조차 없었다.

얼마 동안 말없이 만금이를 붙들고 있던 아버지는 이윽고 만금이를 품에 안고 동리 앞을 흐르는 강으로 나가 빈배에다 그를 눕히였다.

《아버지…내 걱정은 조금도 마세요. 나는 아무 일도 없이 지냈어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만금이는 이렇게 위로했다.

두 사람이 탄 배는 물'결을 따라 고요히 흘렀다. 적막한 산'골의 고요한 저녁이였다. 서산 머리에 비낀 저녁 노울은 피'빛으로 붉었다. 황혼이 기'들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자기 배낭에서 미시'가루를 꺼내여 물에 타서 딸에게 먹이였다. 그리고 강을 건너 만금이 큰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집에서도 자식들은 다 죽고 부모네만 오막살이를 지키고 있었다. 큰 어머니는 죽은 자식들을 생각하여 만금이를 불쌍히 여겨 같이 살자고 반가히 맞아 주었다.

아버지는 큰 어머니 더러 만금이를 잘 돌바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미시'가루며 옷감을 꺼내 주시였다. 아버지는 전투중에서도 항상 만금이에게 주려고 옷감들을 마련하여 배낭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것이다.

이윽고 아버지와 딸은 다시 헤여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아버지 념려 말아요. 어머니와 동생의 원쑤를 어서 갚아 줘요. 내 걱정은 조금도

말아요.》

만금이는 아버지를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였다.

《오냐! 그럼 나는 떠나간다. 어머니와 동생의 원쑤는 꼭 내가 갚겠다!》

아버지는 다시 싸움 터로 떠나 갔다.

오직 혁명을 위하여

왜놈들의 《봉쇄 정책》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만 갔다. 그해 겨울에는 량식 곤난이 더 말할 수 없이 심해져서 유격 근거지 안에 살던 사람들 중에는 할수 없이 봉쇄선 밖으로 흘어져 떠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원쑤 왜놈들과 싸워서 나라를 찾겠다는 애국자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집을 꾸려 가지고 더욱 더 깊은 산'골로 들어 갔다. 죽어도 놈들에게는 항복을 하지 않으려는 결심에서였다.

산'골로 들어 간 그들은 혹은 30명 혹은 50명 이렇게 갈라져서 이곳저곳에다 비밀 부락을 이루고 살게 되였다.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유격대 가족들이였다.

만금이도 그 속에 있었다. 그때 우리 유격대는 멀리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간 후였다.

이처럼 유격대마저 멀리 떨어져 있게 되자 일본놈들은 그곳에 남아 있는 유격대의 가족들에게 거짓 선전과 갖은 위협을 다 썼다. 산중에서 나와 저의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였다.

《너희 유격대 대장도 우리에게 항복했으므로 이제 유격대는 다 없어지고 말았다. 너희가 독립하겠다는 것도 한때 실없는 꿈이였다. 지금 너희들은 믿을 사람들도 없어졌다. 믿을 곳도 없어졌다. 이제부터는 우리 일본의 말을 잘 들어라. 일본 통치구로 나오면 죽이지도 않으려니와 잘 살도록 해주리라 그러나 만일 일본의 말을 안 듣고 그냥 버치고 있으면 모조리 죽여 버릴 것이다.》

이러한 선전문을 찍어 비행기로 유격 근거지와 산림이 뒤덮이도록 뿌려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유격 근거지의 사람들은 이딴 것을 주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개자식들! 네놈들이 암만 우리를 꼬여 보려 해도 쓸데 없다.》

하고 인민들은 코웃음 쳤다. 그러면서 오직 유격대가 다시 저희들을 찾아 올 것만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1935년 가을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전해왔다. 그것은 김 일성 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빨찌산 부대 수천명이 백두산 밑 내두산이라는 고장에 있다는 것이였다.

이 소식을 들은 아동단원들은 다시 김 일성 원수님과 그의 유격대원들을 만난듯이 기뻐 날뛰였다.

손 명직 이란 15세의 아동단원을 책임자로 14명의 아동단원들은 멀고 먼 길을 떠났다. 그속에는 물론 만금이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일 주일을 죽을 고비를 몇번인가 넘으며 끝내 6백 리 먼 길을 걸어 내두산을 찾아 가고야 말았다.

이렇게 아동단원들은 사모하는 자기네의 령도자를 만나기 위하여 험한 원시림을 헤치고 6백 리 먼 길을 돌파하고 또 적의 경계망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조직적으로 행군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오직 김 일성 원수님이 령도하신 우리 아동단이 아니고는 못할 일이였다.

아동단원들은 떠나온 목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곳에 언제까지나 오래 머물어 있을 수는 없었다. 그중 손 명직을 비롯한 한 두명의 제일 크고 튼튼한 아동단원만이 유격대를 따라 가고 나어린 아동단원들은 후방에 남아 있게 되였다.

정 정

《소년단》 1959년 5월호 5폐지 왼쪽'우로부터 15행 《아홉살때에……부모를 여의고》를 《열한살때에……어머니를 여의고》로 6폐지 오른쪽, 우로부터 27행 《두 부모님을 잃어 버린》을 《어머니를 잃어 버린》으로 각각 정정합니다.

베아링

—자강도 희천 고급 중학교대 5 분단에서—

권 기 준

사봉이는 방안에서 어린애 처럼 팽이를치고 있었다. 이런 때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방안으로 들어 오자'바람으로 아버지는 《아니 크다만 녀석이 방안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하고 꾸중하셨다. 그러나 사봉이는 무슨 큰 발견이라도 한것 처럼 《아버지 이것 보세요 낮에 파철을 모으다가 얻은 쇠구슬을 팽이 끝에 박았더니 얼마나 잘 돌아 가는지 몰라요》하며 자랑 삼아 팽이를 내 보였다.

《너 이게 베아링 알이 아니냐?》하고 아버지는 구슬과 사봉이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사봉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베아링이란 뭐예요》 하고 물었다. 《베아링이란 기계나 바퀴를 잘 돌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부속품이다. 너 기차나 자동차, 그리고 기계 바퀴들이 어째서 그렇게 빨리 돌아 갈 수 있는지 아느냐? 바로 거기엔 이런 베아링 알이 끼워 있기 때문이란다》하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베아링은 모든 일을 기계화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과 여지껏 외국에서 수입해다 쓰던 것을 얼마전부터는 우리 나라 로동자 기술자들의 힘으로 낡은 베아링을 재생도 하고 이제는 직접 만들게 까지 되였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아버지네 공장에서도 이런 경험을 본받아 시험 생산에 들어 섰다는 이야기도 자세하게 말씀하였다. 이야기를 듣고 난 사봉이는 바짝 호기심이 나서 《그건 어떻게 만드나요》하고 물었다.

《그건 알어서 뭘 할려구 그러니? 그렇게 알고 싶거든 공장에 와서 직접 만드는 걸 보렴》하고 아버지는 들었던 구슬을 사봉이에게 주었다. 이튿날 공부가 끝난 사봉이는 곧바로 철공장으로 달려갔다. 철공장 아저씨들이 열심히 베아링을 만들고 있는 것을 물끄럼히 바라보고 있던 사봉이는 차츰 자기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환강을 짜르는 일까지 도와 주었다. 이러는 사이에 사봉이는 생각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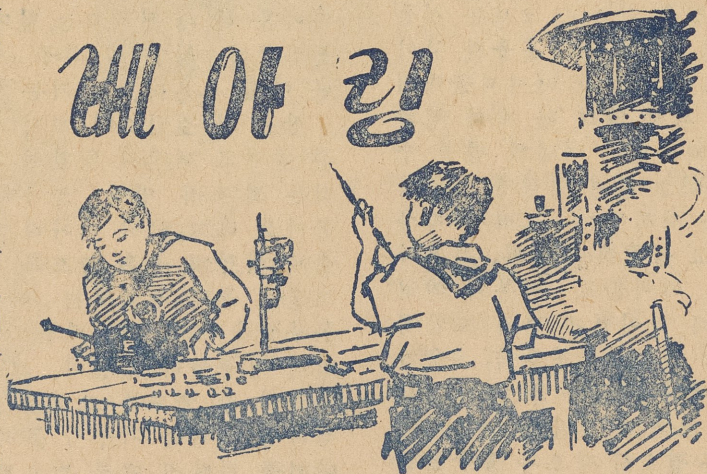
(별로 신비스러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지 않는가… 이렇다면 우리라구 만들지 못할건 없지 않는가!)

《아저씨 우리도 이런 베아링을 만들수 있나요?》 하고 물었다. 곁에서 환강을 짜르고 계시던 아저씨는 《암 만들수 있구 말구.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만들어서 못할 일이 있나? 게다가 너희들이야 우리들보다 아는 것이 더 많거든》하고 웃으시며 말했다. 이 말에 사봉이는 부쩍 자신이 생겼다. 한번 생각하면 참지 못하는 사봉이는 밤새 베아링에 대하여 공상하였다.

다음날이 였다.

사봉이는 분단 위원장 영풍이를 만나서 어제 있은 이야기를 죄다 하고 분단에서도 베아링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을 내 놓았다. 영풍이는 처음에는 좀 망서렸지만 사봉이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 했다. 그래 영풍이는 이를 곧 지도원 선생님과 의논하였다. 다음 날 분단 모임에서 였다.

베아링을 만들 데 대한 분단 모임이 열렸다. 먼저 사봉이가 베아링의 중요성과 만드는 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였다.

사봉이 말이 끝나자 선참으로 운기가 벌떡 일어났다. 《뭐 베아링을 만들자구? 넌 정신 있는 소릴 하니? 너 베아링이 어떤 것인지 알구나 그러니? 베아링이란 건 아주 정밀한 부속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큰 공장에서 훌륭한 설비와 기술이

있어도 만들기 힘든 기야, 내원 흙 구슬 빚는 것처럼 생각 하다니까?》

그리자 몇몇 아이들이 킬킬대며 운기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 바람에 가령리에서 다니는 몇 아이들도 《그 따위 쇠 구슬이나 만들어선 뭘해 우리 힘에 알맞는 양철 제품이나 간단한 쇠부치나 만들자》하고 반대해 나섰다. 《어른들이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게 뭐 있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새것을 만들고 모르는 것을 알아 낼때 얼마나 보람있고 훌륭한 일이냐… 하다가 모르면 철공장 아저씨들에게 묻고 더 배우면 되지 않니 난 우리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베아링은 넉넉히 만들 수 있다구 생각해…》하고 분단 위원장 영풍이가 사봉이 의견을 지지했다. 그러자 항상 무언가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윤하, 청룡이를 비롯한 많은 아이들도 사봉이 의견을 지지해 나섰다. 이렇게 하여 모임에선 사봉이, 윤하, 정현이 청룡이, 운기 다섯 사람으로 베아링 반을 조직하고 시험적으로 만들어 보기로 결정하였다. 베아링 반 동무들은 필요한 재료와 공구들을 파철뎀이에서 골랐고 부족한 것은 집에서 가져 왔다. 또한 철공장에 가서 아저씨들을 도와주는 한편 베아링 만드는 기술도 배워왔다. 철공장 아저씨들은 아이들의 생각을 기특하게 여기고 가장 구하기 힘든 5미리메터 환강 7 메터와 베아링 알을 만드는틀까지 만들어 선물로 주었다. 베아링 시험 제작은 시작되였다. 그러나 이들은 첫작업에서 실패했다.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았지만 막상 해 보니 되지 않았다.

사봉이는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았으나 공연히 손까락만 두들어 상처를 냈다. 이들이 만든 것들은 길죽 해진 것, 똥그랗게 되지않고 한 쪽이 골아서 쓰지 못할것, 혹 동그랗게 된 것은 금이 갔고 어느 것 하나 쓸것이 없었다.

어느듯 밖은 어둠이 깃들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자리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 다만 운기 만이 볼이 부어서 심심풀이로 마치를 뚝딱거리다가는 두덜거렸다.

이때 영풍이가 찾아 왔다. 수두룩히 쌓인 오작품을 보고 그는 몹씨 근심스러운 얼굴을 지었다. 《사봉아, 락심할건 없어 모든 일이 밥 먹듯 쉬운 것은 아니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않았어 원인을 밝히고 계속 만들어 봐. 운기가 너를 도와 줄거야》 영풍이는 흘낏 운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나 운기는 휙 고개를 다른 곳에 돌려대며 못마땅한 얼굴을 하였다. 그리고는 신경질을 부리며 마치를 휘두르다 그만 엄지손까락을 때렸다.

《앗!》 운기는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는 마치를 휙 내 던지고는 벌떡 일어났다. 《난 못하겠다. 암만 해 봐두 이건 헛 수고야 난 이젠 모른다.》 운기는 힝 뛰여 나갔다.

밤은 퍽 깊었으나 끄마 공장에 켜진 불은 좀체로 꺼지지 않았다. 그 속에서 울리는 쇠'소리 만이 눈나리는 고요한 밤공기를 타고 멀리 메아리 쳤다. 벌써 이틀째 이렇게 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며칠후 분단 위원회는 다시금 베아링 반 동무들을 도울 데 대한 모임을 열었다. 먼저 영풍이가 말했다. 그는 베아링반 동무들이 밤 늦도록 고생은 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밥으로 쓸 환강이 없다는 것과 중요하게는 운기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운기는 분단에서 위임을 받고도 원인을 몰라 애를 먹고 있는 사봉이를 도와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분단 동무들은 한결 같이 운기가 가진 지식과 사봉이의 노력을 합하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데 운기는 마지못해 일하고 있으며 곤난에 빠진 동무를 도울줄 모르는 나쁜 버릇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고쳐야 하겠다고 친절히 이깨워 주었다. 그리고 재환이는 집에서 밥으로 쓸 5미리메터 황강 5메터를 가져 오겠다고까지 하였다. 다른 동무들도 사봉이를 도와 줄 좋은 의견을 많이 내 놓았다.

분단 모임에서 충고를 받은 운기는 후꾼달아 두덜거리며 곧바로 집으로 오고 말았다. 자리에 누운 운기는 아직 쑤시는 손'가락을 바라보며 두덜거렸다. 한편 눈앞에는 추운 밤 끄마 공장에서 고생하고 있을 사봉이와 동무들도 자꾸 나타났다. 그리고 분단에서 받은 위임도 있고 해서 더 누워있기 미안하였다. 또한 (사봉인들 얼마나 안타까울가…) 이런 생각을 하던

운기는 옷을 걸쳐 입고 집을 나섰다. 함박 눈이 펄펄 내리는 밤이다. 사방은 먹물을 풀어 놓은 듯이 깜깜하였고 오직 끄마 공장에 켜진 불만이 유난히도 밝게 비쳤다. 운기는 자기도 모르게 불'빛을 향해 발'등까지 빠지는 눈'길을 걸었다.

운기가 문을 열고 들어 섰을 때다. 사봉이는 반가운 듯이 마주 뛰여 오더니 옷에 묻은 눈을 털어 주며 《너 몹시 춥겠구나 난로 곁으로 가자》하고 운기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러면서 《마침 잘 왔어 그러지 않아도 너에게 찾아 가려는 참이야, 우린 아무리 생각 해도 원인을 모르겠어 이것 좀 도와 줘》하고 못쓰게된 베아링 알 몇개를 운기에게 보였다. 운기는 사봉이가 그처럼 따뜻이 대해 주며 안타까이 자기에게 물어 볼줄은 생각도 못했다. 사봉이의 태도에 운기는 눈 시울이 뜨거워 졌고 가슴에 찔리는 바가 많았다.

그렇다구 뭐라 말할 것은 없었다.

말 없이 사봉이가 내 미는 오작품들을 손에 들고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던 운기는 혼자'말 처럼 중얼거렸다.

《"밥"에 관계가 있는게 아닐가… 혹시 "틀"이 나쁠지도 몰라…》

《뭐 "밥"에 관계가 있다구 그리고 "틀"도…》 사봉이는 덩달아 물었다.

《그렇지 않구야 왜 이렇게 고루지 못하겠니?》 운기의 말에 사봉이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혹시 그럴지 몰라, 한번 만들어 보자》하고 사봉이는 자로 정확히 재서 "밥"을 잘라 만들어 보았다. 역시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틀까지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만들었다. 그랬더니 정말 동그랗고 직경도 정확히 5미리메터인 베아링 알이 만들어 졌다. 다시 하나를 만들었다. 역시 훌륭 한 합격품이였다. 모두들 너무 기뻐서 만세를 불렀다. 신이난 아이들은 단꺼번에 20개나 만들었다. 오작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처음 부딪친 애로는 해명되였다. 이것으로 베아링을 다 만든 것은 아니였다. 다만 첫 곤난을 이겨 냈을 뿐이였다. 틀에서 꺼낸 베아링 알을 1,400도의 불 속에 넣어 열처리를 하여야 했고 녹이 쓸지 않도록 도금도 해야 했다. 이때마다 많은 실패도 거듭했고 곤난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 마다 사봉이와 운기는 서로 돕고 의논하여 해결 하군 하였다. 이 분단에서는 사봉이가 운기에게 손'재간을 키워 주었고 운기는 사봉이에게 학습을 도와 준 것처럼 모두 서로 도와 가며 일했다. 이리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것에 비해 못지 않는 질좋은 베아링 알을 1,500개나 만들어 정밀 기계 공장에 선물로 보냈다.

이 분단에서는 사봉이처럼 손재간이 있고 대담하게 새것을 만들어 보는 훌륭한 생각도 지식이 부족하면 곤난을 뚫기 힘들고 운기처럼 공부는 잘 하나 생활에 리용하지 않을 때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동시에 두 힘이 합쳐지기만 하면 어떤 곤난이 있드라도 못할일이 없다는 값 있는 경험을 얻었다.

베아링으로 하여 사봉이와 운기는 더욱 친해 졌다.

여기는 동해에서도 어장으로 이름난 신포항.

시언한 바다'바람이 불어온다. 푸르디 푸른 바다'물이 눈부신 여름'볕에 반짝이며 조용히 백사장 기슭을 핥고 있다.

하늘과 바다가 이마를 맞대고 있는 아득한 수평선 넘어로 고기'배들이 돌아 온다. 유리알 처럼 파아란 바다 우로는 흰 갈매기들이 춤추듯 유유히 날아예고 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정다운 바다—이 얼마나 소년단원들의 마음을 끄는 곳인가!

이날도 바다'가에는 신포 제 1중 학교대 해양 크르쇼크원들의 즐겁고도 신나는 바다 생활이 벌어지고 있었다.

푸른색 빨간색의 수영복을 입은 200 여명 소년단원들이 뙤약볕에 따가워진 고바우열 사장에서 와자지껄 웃으며 장난치며 뛰놀고 있었다. 그들의 해'볕에탄 구리'빛 몸둥아리들은 보기만해도 늠늠하고 믿음직 스럽다.

해양크르쇼크 지휘부의 신호수인 2학년생 리 수자 동무는 볕에 탄 곱살스런 얼굴에 함뿍 웃음을 띄우며 자기들의 즐거운 바다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우리학교대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해양 스포츠의 날로 정했답니다. 그리고 매일 방과후 마다 우리들은 분단별로 바다에 나와요. 뭣을 하는가구요? 신호 훈련, 수영, 노젓기 련습을 한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다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 모임도 가지구요. 우린 그동안에 벌써 많은 바다에 대한 지식을 얻었답니다.… 이제 우리학교 수족관에 가보신다면 우리들이 바다에 있는 어족, 조개류 해초류들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실겁니다》.

그러면서 리 수자 동무는 기어히 학교에 와달라고 말하였다. 우리 이야기를 한옆에서 듣고 있던 같은 2학년인 김 혜경 동무는 해양 크르쇼크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 학교 대의 해양크르쇼크가 조직된지는 퍽 오랬습니다. 우리 크르쇼크엔 단정 훈련반. 수영반. 해상 수기 신호반, 모형 함선반, 이렇게 네개 반이 있답니다. 여기서 훈련된 크르쇼크원들은 특히 수영반 같은데서는 반원의 90%이상이 국가인민 체력 검정의 제일 어려운 수영에서 소년급 자격들을 가지게까지 되였답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활을 통해 정말 바다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마친 혜경 동무는 검으티티한 얼굴을 돌려 조용히 구비치고 있는 바다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이였다. 그 속에는 바다의 씩씩한 용사다운, 바다의 믿음직한 주인다운 자랑과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류량한 라팔 소리가 바다'가에 울려 퍼진다.

《훈련 준비를 알리는 신호애요…》하며 혜경 동무가 한 마디 남기고 수자 동무의 손목을 잡고 아이들게로 달려 간다.

예비 운동이 시작된다. 아이들은 바다에서 단련된 얼굴을 번쩍 이면서 씩씩하게 팔다리 운동을 한다. 이윽고 훈련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길게 호각을

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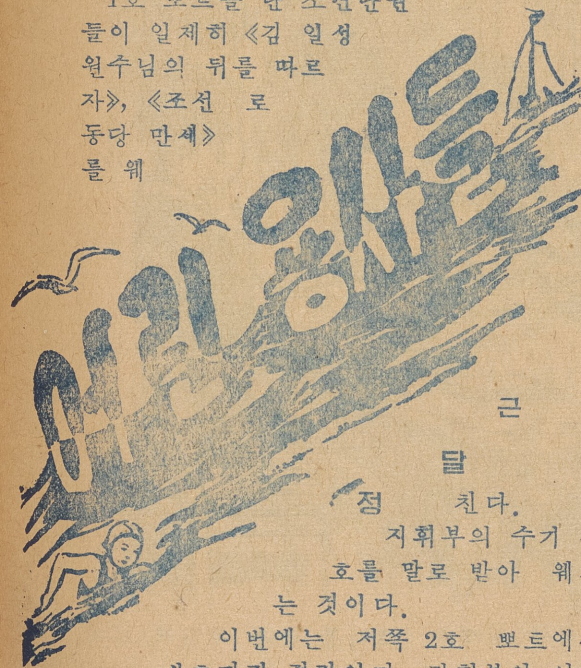
남학생들은 6명씩, 녀학생들은 3명씩 패를 짓고 정연히 선다. 그리고는 선생님의 주의 사항을 듣는다. 이들은 마치 전투를 앞둔 병사들만 같다. 선생님의 구령과 함께 소년단원들은 재빠른 동작으로 뽀트에 올라타고 힘차게 노를 젓는다.

배는 푸른 파도를 헤치고 미끌어지듯 앞으로 전진한다.

해변'가 모래발 지휘부에서 리 수자 동무가 흰 기와 붉은 기를 가로 세로 휘젓는다. 1호 뽀트에서 김 혜경 동무가 이에 대답하여 기'발을 펄럭인다.

휘젓는 기'발에 주고 받는 대화가 오간다. 수기 신호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지휘부의 신호기는 쉴사이 없이 신호를 보낸다.

1호 뽀트를 탄 소년단원들이 일제히 《김 일성 원수님의 뒤를 따르자》, 《조선 로동당 만세》를 웨

근

달

정 친다.

지휘부의 수기 신호를 말로 받아 웨치는 것이다.

이번에는 저쪽 2호 뽀트에서 신호기가 펄럭인다. 지휘부와 여러 뽀트들에서 재빨리 알아차리고 일제히 《유격대 행진곡》을 힘차게 부른다. 다시 1호 뽀트에서 기'발이펄럭인다. 《강원도 수산 부문 당 열성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바다의 정복자 바다의 개척자가 되자!》 지휘부와 각 뽀트들에서 목청껏 화답한다.

지휘부에서 또 신호가 온다. 《1호 뽀트는 앞으로, 2호 뽀트는 뒤로! 배'길을 〈8〉 자형을 그리며 륙지로!》

뽀트들이 신호에 따라 배'머리를 돌린다. 《8》자형을 그리며 포구로 돌아 온다.

뽀트들은 파도를 가르며 쏜살같이 달린다.

바다'가 저쪽에서는 2학년 3반 녀학생들이 자유영 200메터 수영 경기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

지휘부에서 새 신호가 온다. 그러자 각 뽀트들에서 수십명의 남 녀 소년단원들이 용감하게 바다에 뛰여 들어 배영, 나비영. 모재비영으로 헤염치면서 륙지로 돌아 온다. 날새게 물을 가르며 전진하는 이들은 헤염에도 모두가 선수이다. 강 숙자 동무가 앞장 서 나아간다. 이 동무는 함남도 소년 수영 경기 대회에서 4종목에 걸쳐 우승한 래일의 믿음직한 수영 선수이다.

이번에는 노젓기 경기가 시작된다. 6명씩 패를 무어 1, 2호 뽀트에 올라타고 신호와 함께 경기를 시작한다. 《둘 하나!》 소년단원들의 힘찬 웨침소리가 포구에 울려 퍼진다. 두 배가 출발점을 미끌어져 나가더니 이미 지정된 대구섬 기슭에서 배'머리를 돌려 륙지에로 돌아 온다. 1호선의 배'머리가 먼지 결승선을 뚫고 들어 온다. 《와…》터지는 소년단원들의 함성소리가 바다'가를 뒤흔든다.

이긴 패들은 너무도 좋아서 깡충 깡충 토끼춤까지 추며 돌아간다.

소년단원들의 이 모든 모습들은 래일의 바다의 정복자로 개척자로 씩씩하게 자라는 믿음직한 모습들인 것이다.

지금 신포 제 1중학교대 소년단원들은 강원도 수산 부문 당 열성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의 가르침을 받들고 더욱 더 신이 나서 바다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곳 소년단원들은 누구에게 물어도 수상님이 말씀한 대로 바다에서 보물을 캐내는, 선장으로, 어로공으로, 기관장으로 될 것을 굳게 마음 다지고 있는 것이다.

하루의 바다생활을 끝마치고 발걸음도 가벼히 노래부르며 학교로 돌아 오는 이들의 씩씩한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 마다에는 래일을 바라보는 금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고 있었다.

약 속

황해북도 사리원 중앙 민청 유자녀
학원대 1분단에서

최 옥 선

그림 어 순 우

로어 시간이였다.

장난 꾸러기인 진규는 숙제도 해오지 않은데다 로어 단어를 꾸준히 공부하지 않아 남들이 번역하여 읽는 것을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알지 못할 말을 듣고 있노라니 점점 갑갑증이 났다.

이때 마침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새끼 토끼였다. 휴식시간에 토끼사에 나가 새끼 토끼를 가지고 놀다 그만 종이 나는 바람에 그를 주머니에 넣고 들어왔던 것이다. 《응 네가 있었구나 갑갑한데 나하구 놀자》 진규는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머니 속에서 새끼 토끼를 슬그머니 꺼내였다. 진규는 토끼 발을 추켜들고 전날 밤 야외 무대에서 구경한 춤도 취여 보고 곡예도 시켜 보았다. 곁의 동무들은 웃음을 겨우 참아가며 킥킥거렸다.

진규는 아이들의 웃는 바람에 더욱 신이나서 앞에 앉은 일남이의 목우에 토끼를 올려 놓았다. 성질이 급하고 덤비기 잘하는 일남이는 깜짝놀라 《익크!》하고 소리를 질렀다.

순간 동무들의 시선은 진규에게 집중되였고 교실에는 큰 웃음통이 터졌다. 장난을 시작한 진규에게 선생님은 엄격한 음성으로 《진규 일어 나시요 하고 말씀하시였다. 진규는 일어나면서 슬쩍 토끼를 뒤로 감추고 일어났다. 진규의 뒤에서는 토끼가 꿈틀거렸다. 진규는 가슴이 두근 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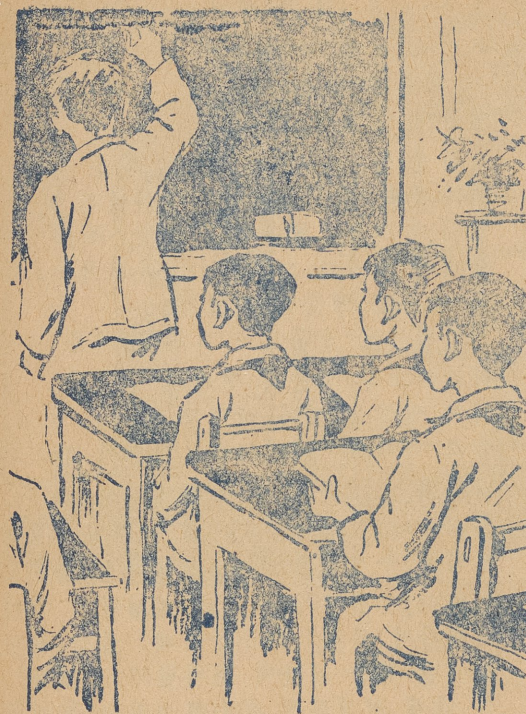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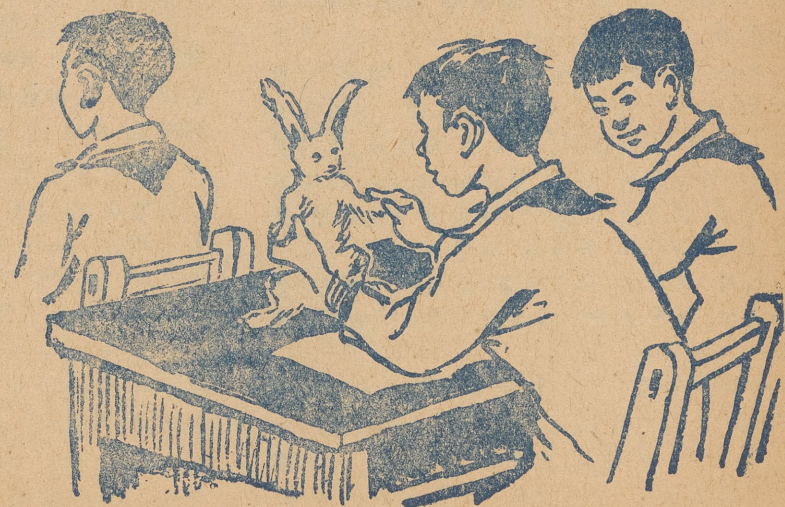
이때 뒤에서 《토끼를 공부 시간에 가지구 그래서야 되겠소》하는 소리가 들렸다. 진규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교수 참관을 들어오신 부원장 선생님이 였다.

이날 학습이 끝나자 분단 지도원 선생님은 분단 열성자들과 진규와 가장 가까히 생활하는 최 응남, 김 정성, 리 상구 동무들을 불렀다.

그리고는 진규에대한 문제를 의논하였다. 선생님은 이날 진규가 토끼를 가지고 장난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진규는 바로 생활을 규칙없이 제멋대로 조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 하시였다.

진규는 처음 학원에 도착하여 전쟁시기에 미국 놈들에게 빼앗긴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들의 뒤를 이여야 해 그러기 위해선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동무들과 같이 굳게 약속하였다.

진규는 처음에 자기 결심대로 하노라 노력 하였다.

그런데 점차 학과 학습보다는 체육 오락등 과외 생활에 더 취미를 돌리기 시작

하더니 분단 동무들과 동 떨어진 생활에 빠졌다. 분단 동무들이 다 쉬고 있는 시간이면 나가 뽈을 차고 장난하다가 복습 시간이 돌아오면 피곤 하다고 하면서 침대 밑에 몰래 기여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이였다. 그리고 남들이 취침하는 밤에는 슬그머니 빠져나가 영화구경도 가고 야외 무대 구경도 돌아 다니다가 아침 기상종이 울려도 세상을 모르고 자군하였다. 그는 학습 시간이 되여서야 숙제 생각이 나고 공부할 걱정이 나서 덤비였다. 그러나 다른 동무들이 모두 학습을 끝내고 쉬고

있는 시간에 자기혼자 공부하는 것은 마음만 뒤설레여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분단 동무들의 생활과는 맞지 않는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다보니 학습도 뒤떨어지고 동무들과도 어울리지 못하였다. 그래서는 다른 분단 동무들과 밀려 다니는 것이였다.

진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하나 따져가며 이야기하신 선생님은 분단은 진규가 분단의 규칙적인 생활에 습관 되도록 이끌어 줘야한다고 하시였다.

항상 진규를 어떻게하면 고쳐줄 수 있을가 하고 생각해 오던 열성자들은 진규도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아이라고 하면서 우선 진규를 분단 규칙 생활에 인입하기 위해서는 분단 동무들과 친해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 진규와 가장 가까히 생활하는 동무들에게 과업을 주었다.

진규가 외부에 나가서 하는 놀음, 다른 분단 동무들과 밀려 다니며 하는 체육 시합 오락 등을 그와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응남이, 정성이, 상규 기타 동무들이 항상 가까히 접근하여 같이 함으로서 그가 분단 동무들과 분단 집단과 더 가까와 지도록 하자는 것이였다. 그러면서 점차 분단의 규칙적인 생활에 그를 인입하고 습관 시켜 개진 시키자는 것이였다.

이런 의논이 있은후 어느날 저녁이 였다. 진규와 동무들 간에는 장구 시합이 벌어졌다. 진규는 말쓰는 법이 서툴어 련거퍼 세번씩이나 지게되였다. 《내가 장구에는 졌지만 탁구나 축구를 하면 너희들 같은건 어림두 없다》진규는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소리쳤다. 이때 진규의 결 침대에 앉아 있던 응남이가 《진규! 너 우리하구 탁구 시합하려 가지 않겠니》하고 물었다.

《할래면 하자 자신있다》하고 벌떡 일어났다.

《그래 하자 상규도 정성이도 같이 데리고 가자》하고 응남이도 일어섰다.

네 동무는 탁구 시합을 시작하였다.

원래 진규는 체육에 취미가 있는 동무여서 솜씨가 있었다. 진규는 자기가 계속 이기는 것이 신바람이나서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복습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진규는 탁구채를 집어던지며 《야…너희들 때문에 오늘 계획이 파탄 됐구나.

난 이제라두 체육 경기 구경을 가봐야겠어》하고 덤비 였다.

《지금 복습 시간인데 어딜간다구 그래 너 래일 또 숙제를 못해가지구 가서 2 점 맞을려구 그러니 어서 들어가자》하고 세 동무는 진규를 끌었다. 진규는 하는 수 없이 동무들을 따라 들어 왔다.

다른 동무들은 모두 자기 일과표에 의해서 이튿날 학과 준비도 하고 복습도 하였다.

그러나 진규는 공부가 하두 밀려 이것저것 뒤적이기만 하고 좀체로 안정해서 공부하지 못하였다. 그는 숙제를 해야했는데 시간중에 장난 했으니 노트 정리도 되지 않았다. 진규는 나중에 《졸려서 못견디겠네》하고 하품을 하였다.

이때 곁에서 공부하고 있던 상규와 응남이는 일과표를 내놓고 자기 경험들을 이야기하였다.

《네가 바로 학습이 뒤떨어진것은 규칙이 없이 자기멋대로 생활한 까닭이야, 우리와 같은 생활을 했다면 네가 왜 이처럼 떨어졌겠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자, 우리 일과표대로만 공부해봐…》

하고 동무들은 번갈아 이야기 하였다. 진규는 머리를 극적극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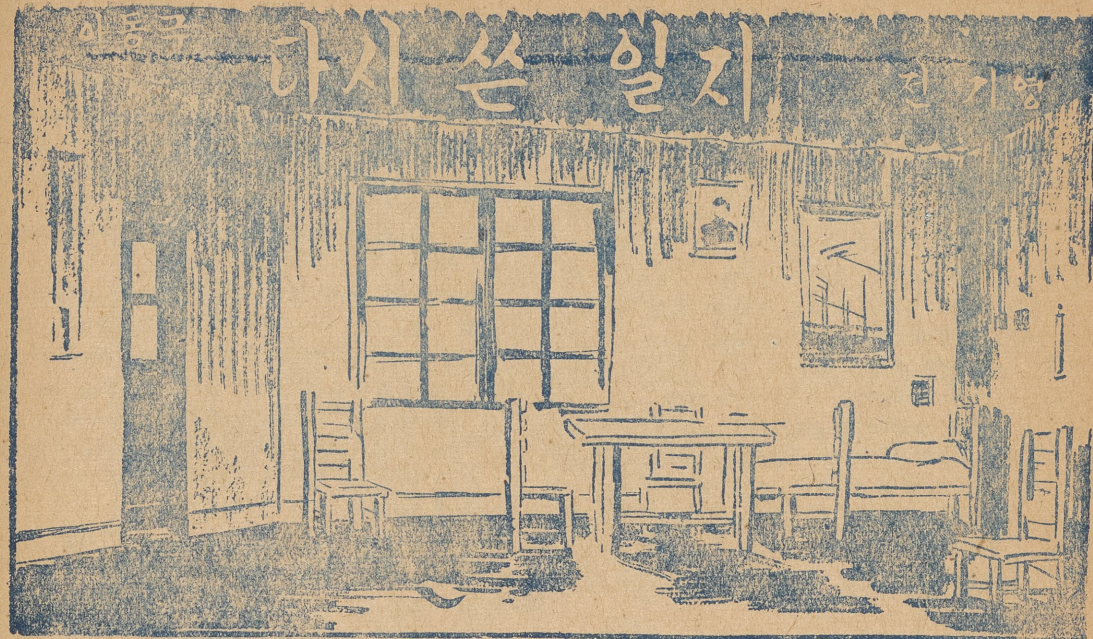
이날 저녁 세 동무와 열성자들은 진규의 학습을 방조해주면서 그의 일과표를 만들어 주었다.

처음 얼마동안 진규는 일과를 지키려고 하다가도 자기 습관을 나타내려 하군 하였다. 그는 공부하다가 잘 리해안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놀러갈 생각만 하였다.

이럴때면 동무들은 그가 문제를 완전히 리해하도록 꾸준히 설명해 주었다. 이리하여 진규는 점차 숙제도 제대로 하고 복습도 제대로 해가지고 학습에 참가하게 되였다. 그래 학습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도 다소 리해할 수 있어 차츰 학습에 재미를 부치면서 학습 시간에 장난도 덜하였다. 진규가 때때로 선생님의 설명을 리해하지 못해 동무들에게 묻는 문제는 지난날 학습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지 않아 리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였다. 그래 동무들은 진규의 물음에 대답해 줄 때마다 시간중에 선생님의 설명을 잘듣고 그때그때 리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진규는 점차 동무들의 말이 옳다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진규는 학습 시간에도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들었다. 그러니까 자연 복습과 숙제도 수월하였다.

이후부터 진규는 자기 일과에 의해 생활할 뿐만 아니라 자기 뒤떨어진 학과를 위해 더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는 지금까지도 저녁 취침 시간 전에 동무들과 같이 자기 일과를 총화하군 한다.

이렇게 진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단 동무들의 노력에 의해서 진규는 학습에 취미를 붙이게 되였고 집단과 손을 잡게 되였다.

오늘의 진규는 분단의 사랑 받는 연극배우이며 라팔수가 되였고 분단의 체육선수가 되였을 뿐만 아니라 우등의 성적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처음 학원에 도착하여 동무들과 한 약속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때—봄.
곳—농촌, 초급 중 학교
사람들—
영진 (생물 크루쇼크 책임자)
문길 (생물 크루쇼크원)
윤식 (생물 크루쇼크원)
기타 기억, 복희, 춘자, 수남 등 크루쇼크원들.
무대—
생물 크루쇼크실.
벽에 60및 40와트 스위치. (그 밑에 놓여 있어야 할 부란기가 보이지 않는다) 좌우에 출입구와 들창 그 밖에 침대와 책상, 질서없이 놓여 있는 의자들. 들창 밖으로 비에 젖은 전야가 내다 보인다.
막이 오르면—
비가 그친 뒤. 아침이다.
문길이는 생각에 잠겨 출입구 곁에 섰고 기억, 복희, 춘자 등 크루쇼크원들은 여기저기 맥없이 앉아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들창 밖에서 락수'물 떨어지는 소리 간신히 들린다.

△ 사이.

기억 젠장, 영진인 뭘하구 있는거야.

복희 지도원 선생님이 부르셨으니까 좀 시간이 걸릴거야.

기억 욕은 먹어뒀지. 영진인 생물 크루쇼크 책임자인데다가 부란기를 만들자고 처음 말 꺼낸 애니까.

복희 그래두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춘자 난 욕은 좀 먹드래두 다시 부화하라면 좋겠다 얘.

기억 체, 그만 둬 또 이꼴이나 당하려구!

복희 (크루쇼크 일지를 들척거리며 읽다가) 참, 모를 일이야. 일지에 보면 부란기에 온도가 오른 적이라군 한번두 없었는데 닭알이 어떻게 탔어?…

기억 흥, 재미 난 골에 범나지 않아? 술적꿍 거짓 말을 쓴 애가 있다는걸 알아야지.

춘자 이건 정말 우리 크루쇼크의 수치야. 우리 생물 크루쇼크원들이 만든 부란기루 설혼마리의 병아리를 까서 우리 꼬마 목장에서 친다구 데 벽보에 자랑까지 다 내군 이게 무슨 꼴이냐

복희 그뿐인가 뭐, 관리 위원장 아저씬 조합 목장에서 닭알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린 뭐루 대답하겠니, 얘!

기억 말두 말어. 오늘까지 스무하루 동안 부란기에 온도를 보장하누라구 우린 또 얼마나 애썼다구!

복희 (일지장을 번지다가 마지막 폐지를 읽는다) 《오전 열시 십분이였다. 비'바람에 전선이 끊어졌다. 리 윤식이 배전부에 달려가 전공을 모셔왔다. 그때 온도는 십도까지 내려 갔었다. 열시 오십 칠분에 전기는

다시 왔다. 오전 한시에 씀. 당번 박 문길, 리 윤식》…

춘자 참 윤식인 열이 대단한 데 좀 어떨가? 그앤 용감한 애야. 난 무서워서두 잘 말을 내지 못했을 거야. 글쎄 캄캄한 밤, 찬비가 우박처럼 쏟아지는 데 오리나 되는 배전부엘 어떻게 달려갔다 오니. 더구나 윤식인 그리 튼튼한 애도 아니지 않어.

복희 그래서 윤식인 감기에 걸려 열이나서 집에가 들어 눕구, 정말 어제밤 윤식이랑 문길인 당번을 서면서 수고 많았어.

기억 그렇지만 소용있어? 이꼴이 됐으니 첫!

△ 또다시 침울하여 모두 말이 없다.

△ 문길은 발끝만 내려다 보며 서 있다가 동무들 모르게 밖으로 나가려고 슬며시 문을 여는데, 때마침 영진이 급히 들어 온다.

영진 문길이 너 어디 가니?

문길 (당황한듯) 아아니, 그저…

기억 (벌떡 일어나며) 영진아 지도원 선생님이 뭐라시든?

영진 좀 기다려. 곧 올께. (일지를 집어든다)

복희 일지는 왜 가져 가니?

영진 지도원 선생님이 보시겠대. 분명이 닭알이 데였다는거야. (급히 퇴장)

기억 엥이, 분해서!

춘자 따라 가보자, 얘!

△ 춘자, 기억, 복희 등 크르쇼크원들은 영진이를 뒤좇아 나간다.

△ 실내에는 문길이 혼자 남는다. 그는 문고리를 잡고 망서리다가 출입구를 닫는다: 천천히 돌아서며 모자를 벗어 책상 우에 내던지고 침대에 나가 눕는다.

△ 잠시 후, 목에 붕대를 처맨 윤식이가 상기되여 황급히 들어온다. (그는 목이 쉬였고 자주 기침을 깃는다)

문길 (놀라 일어나며) 윤식이구나? 너 왜 나왔니? 열이 좀 내렸니?

윤식 문길아, 어떻게 됐니? 정말 닭알이 뎄니?

문길 으응…

윤식 (의자에 풀썩 주저 앉으며) 정발이였구나…

문길 누구한테서 들은게구나?

윤식 옆집에서 사는 5분단 애에게서 들었다. 검란해 보니깐 닭알이 뎄다더란 말을 듣구서야 어디 이불 쓰고 눠있겠어야지. 그래 어머니 몰래 달려 나왔어…

문길 그러다 열이 더하면 어쩔테냐.

윤식 문길아, 그런데 닭알이 어떻게 데였을가, 응?

문길 글쎄…

윤식 일지를 보면 어제 낮까지두 온도가 변함없지 않았니. 그래서 난 달려오면서 이런 생각두 했어. 혹시 어제 밤에…

문길 (말을 가로챈다) 윤식아! 그런말 누구에게 꺼내지두 말어. 어제 밤에 온도가 오른땐 한번두 없었는데 무슨.

윤식 …문길아, 어제 밤, 네가 집에 갔다 왔을때 정말 39도였니?

문길 (당황한 기색을 띠우더니 곧) 으응, 39도 아니구…

윤식 내가 열이 나서 집에 들어 간 뒤에두?

문길 응.

윤식 그럼?… (안타까운듯) 내가 잠든새 온도가 올랐댔을지 누가 아니? 문길아…. 난 참 바보야. 송배전부에 달려갔다 와서 피곤하구 열이 올랐지만 그래두 난 자지 않으려구 애썼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거든…

문길 온도엔 이상 없었다는데두. 난 네가 잠들자마자 곧 돌아온 셈인데 뭘그래…

윤식 문길아, 난 네가 제일 좋아. 같이 공부하기두 좋구, 놀기두 좋구. 그렇지만 이런 큰 사고가 부닥쳤으니 말이지 난 네가 자유주월 부릴 땐 제일 싫여…

문길 또 어제'밤 당번 설 때 얘기구나 (낯을 찡그린다)

윤식 생각해 봐. 내가 잠든 사이에 종래 집에 가고야 말았지. 당번은 제자릴 떠나지 말기루 크르쇼크 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두. 더구나 열시가 교댄데 넌 열두시가 되여서야 돌아왔거든…

문길 새매만 병들지 않았대두 난 자릴 뜨지 않았겠다.

윤식 거봐. 넌 크르쇼크의 일보담 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문길 그만 둬, 내가 당번 설 시간에 정전이 돼서 널 고생시킨걸 내 잘 못인줄 알고 있어.

윤식 문길아, 넌 뭘 그렇게 말하니, 난 네가 집단 생활에 충실했으면 해서 한 말인데… (기침을 깃는다)

문길 (윤식이의 동정을 살피다가) 애들은 널 훌륭한 애라구 칭찬들 하고 있다. 그런데 네가 잠들었댔다는 걸 알면…

윤식 그래, 그럴거야. 애들은 날 나쁜 애루 고쳐 생각할거야…

문길 그래서 난 일지에다 그 일은 쓰지 않았다.

윤식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만 잠겨)… 정말 내가 잠든 새 온도가 올랐을 수도 있어. 난 참 정신이 나갔든가바. 왜 잠들었댔을가? 꼭 참아내지 못하구. (괴로운듯 밖으로 뛰쳐 나간다)

문길 (따라가며) 윤식아! (문가에 서 버린다. 천천히 되돌아 선다. 혼자 소리로)… 내가 집에 갔다왔을 때 부란기 온도는 44도였다는걸 일지에 쓴다면… (부정하는듯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그런데 되려 윤식인…

△ 인기척이 가까워 온다.

△ 문길이는 책상 우에서 모자를 집어다 쓰고 들창가로 간다. 그는 창밖에 두 팔을 내밀고 손바닥에 락수물을 받는다.

△ 일지를 든 영진이, 빈 부란기를 걸머진 기억이, 그리고 춘자, 복희 등, 크르쇼크원들이 침울하여 들어온다.

영진 문길아, 수남인 아직 안 나왔니?

문길 응, (창가에서 돌아선다)

복희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앤…

춘자 (새침해 있다가 영진이에게) 넌 왜 지도원 선생님이 다시 부화하라는걸 거절했니?

기억 (부란기를 메따꽂고 타고 앉으며) 잘 했지, 뭘그래.

춘자 뭘? 잘했어? 우리가 다시 부화 못할게 뭐란 말이냐!

영진 춘자 말이 옳아, 그래서 난 온도를 높이구두 일지에다 쓰지 않구 숨긴 그런 솔직하지 못한 앨 우리 크르쇼크에서 제명한 다음에 다시 부화하겠다고 그랬어.

복희 참말이야. 찾아내야 해, 그런 애가 우리 크르쇼크에 남아 있는 한 또 실패할 수도 있지 않어?

△ 열려진 창가에 윤식이가 나타난다.

영진 얘들아, 언젠가 단 지도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일지는 집단 생활의 거울이라구 말야.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일지를 속이는 비겁한 애가 있거든. 이건 집단을 속이는거나 뭣이 다를게 있니?

기억 일지나 속일 그따위 애하군 난 다르다—

△ 《나두》《난 안 속였다》 등 웅성거린다.

영진 (비로소 윤식이를 발견하고) 윤식아! 너 언제 나왔니?

윤식 난 다 들었어 문밖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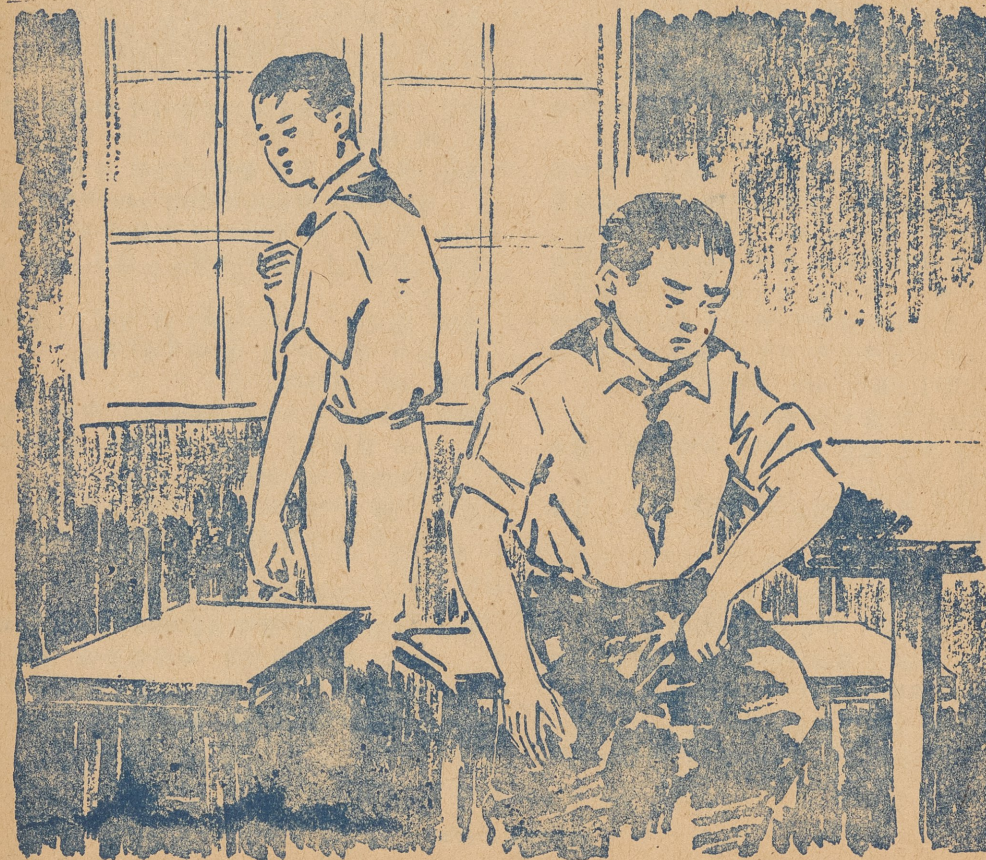
영진 (윤식이의 이마를 짚어보며) 들어가 눠, 넌 열이 대단히 높아.

윤식 영진아, 난 할말이 있어.

영진 무슨 말?

윤식 난, 영진아… 어제'밤 당직 서다 잠들었댔어…

영진 뭘?

△ 모두 놀란다.

윤식 송배전부에 갔다 온 담이였어, 난 자지 않을려구 애썼는데, 그런데 열이 나구 그래서 그만…

기억 뭐야? 그럼 네가?…

영진 윤식아, 그때 온도가 올랐드랬니?

윤식 내가 깨니깐 문길이가 부란길 지키고 있었어 그땐 삼십구도 그대루였어.

기억 사실이냐, 문길아?

문길 (얼버무리듯) 으응…

춘자 그럼 온도엔 이상 없었구나 뭘,

윤식 그렇지만 문길이가 부란길 지키기 시작하기 전엔 부란기 곁이 비여 있었거든. 그때 혹시 온도가 올랐다가 내리지나 않았는지 모르겠어.

△ 웅성거린다.

윤식 …아마 그랬을거야… 난 왜 잤을가, 영진아!…

영진 (윤식이를 의자에 부축해 앉히며) 넌 그때 잘 수 밖에 없었을거야. 애들아, 우린 얘기했지, 윤식인 집단 생활을 위해선 몸두 아끼지 않는 애라구 말야, 우린 윤식일 믿어야 옳아.

△ 모두 말이 없다.

영진 (일지를 펴놓으며) 그럼 윤식아, 그 일을 일지에 써넣어야지.

윤식 응, 쓰겠어… (펜을 든다)

△ 이때 수남이 숨이 턱에 닿아서 뛰여 들어온다. 그는 한손에 모이자루를 들고 나무단과 남비를 지게에다 지었다.

수남 애들아! 모이! 모이! 귀밀야! 이거문 문제 없지? 관리 위원장 아저씨가 보내줬어. 우리가 병아릴 깐다구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니? 저녁에 우리 병아릴 구경하려 오시겠대. (지게를 벗어놓고) 이건 모이끓일 남비, 이건 장작! 어때? (침울한 공기를 느끼고 동무들을 휘둘러 본다) 왜들 그러구 있니, 응? 아니 부란긴?…

문길 (수남이의 눈길을 피한다)

기억 모일 도루 갔다 드려라 우린 모이 받을 자격이 못돼.

수남 어떻게 됐니? 애들아!… 영진아, 어떻게 됐어?

영진 수남아! 텟어, 닭알이…

수남 뭘? 텟어?… (금시 맥을 잃고 주저앉으며) 실패구나… 공연히 뛰여다녔지…

복희 우린 관리 위원장 아저씨가 오시면 뭐라구 말해 드려야 좋니?

△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 문길은 윤식이와 눈길이 마주 치자 창가로 돌아선다. 그는 모자를 벗어들고 만지작거린다.

△ 윤식은 얼굴을 떨군다. 그는 나오려는 기침을 참으려고 애를 쓴다.

영진 윤식아, 몸이 괴롭니?

윤식 아니, 아무렇지두 않아, (기침이 폭발한다) 쓰겠어… (일지에 쓴다)

△ 문길은 창가에서 돌아선다. 윤식이를 바라본다… 모자를 침대 우에 되는대로 내던지고 윤식이의 곁으로 다가간다.

문길 (펜을 뺏아쥐며) 그만 둬. 내가 쓸테다.

△ 모두 의아하여 문길이를 바라본다.

△ 문길은 떨리는 손으로 일지를 쓴다.

복희 (책상 곁에 다가가 받아 읽는다) 《당번 박 문길은 열시에 교대인데도 개인의 일로 집에 갔다가 열두시에 돌아왔다. 그때 당번리 윤식은 젖은 몸으로 책상에 엎디여 잠들어 있었고 부란기의 온도는 44도였다》… 응? 저것 봐!

△ 모두 놀라 일지 주위를 들러싼다.

기억 나쁜 자식! (대들련다)

영진 (막아서며) 기억아! 뭘그래. 소년단원답지 않게!

기억 엥이, 저따윌 동무라구!

춘자 넌 알아야 해. 너 하나의 자유주의 때문에 크르쇼크 생활을 망쳤다는걸! 넌 정말 엄중해!

문길 (얼굴을 떨구고) 정말이지 너희들 볼 낯이 없다.

영진 문길아, 우린 문학 시간에 배웠지. 기와장 하나가 대들보를 썩인다는 속담을 말야.

문길 앞으로 그 속담을 잊지 않을테다!

윤식 문길아! 난 이제부턴 네가 싫지 않을거야.

문길 윤식아! (무안해서) 너 열이 더하구나, 어서 집에 가 눠 내 바래다 주께.

윤식 응! 고마워!

영진 (쾌활하게) 어때, 애들아! 더는 이런 사고가 없겠지? 난 곧 선생님께 달려가겠어, 닭알을 구해 달랠래!

기억 그럼 부란기를 높이 모셔 앉혀야지— (부란기를 소중히 함우에 올려 놓는다) 전투 준비!

△ 모두 유쾌해진다.

영진 문길아, 넌 금방 《온도는 44도였다》고 겨우 쓸 수 있었지만 스무하루만 전투하구 봐. 넌 떳떳이 일지에 다시 쓰게 될거야— 《설흔마리의 병아리 분단이 태여났다》고!

— 막 —

집단주의 사상으로

《다시 쓴 일지》의 상연을 위하여

연 출 가 박 춘 명

아동극과 같은 극 작품은 읽는 것 보다는 실지 연극으로 꾸미며 무대에서 상연될때 더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동극 《다시 쓴 일지》는 소년단 단체들에서 상연하면 많은 교양을 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극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하여서는 우선 연극에 참가하는 매개 동무들이 다 함께 그 작품의 내용을 잘 리해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번 읽고 또 자세히 읽어서 그 작품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작품의 내용을 잘 못 리해한다던가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작품에 씌여진 순서 대로 대사 만 옮겨 놓는다 던가 그저 재미나게 하려고만 힘쓴다면 연극은 아무러한 교양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다시 쓴 일지》는 아주 흥미 있고 재미나는 사건들이 많고 또한 기억이 수남이와 같은 특이한 성격도 있어서 연극의 흥미를 중요치 않는 사건이나 개인의 행동에 집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여서는 안됩니다.

이 작품은 크르쇼크원들의 공동 생활에서 윤식이와 같이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책임적으로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사업하는 행동과 집단의 일 보담 자기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길이의 자유주의적 행동과 그의 자기비판을 통해서 우리 소년단원들이 모두다 생활에서 집단생활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 아동극 상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동무들로 하여금 집단 생활에 충실하여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는 쉬운 일이나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집단 생활에서 충실할 것을 말하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뚜렷한 행동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곧 윤식이의 행동과 문길이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이 연극의 이야기 줄거리 입니다. 그런데 윤식이는 옳게 행동하고 문길이는 옳지 못하게 행동합니다. 연극에서는 이 두 행동을 서로 비교해서 진정 옳은 행동이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모범으로 받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 극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길이가 무대에 남아 있으며 그가 량심에 가책을 받고 망서리거나 여기서 피해 나갈가 하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문길이의 소년단원 답게 자기비판을 하기 까지에 이르는 과정이 이 연극에 주되는 이야기 줄거리로 보여지며 또 그렇게 상연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문

길이의 자기 비판도 중요하며 또 이 희곡에서 감격적인 장면으로 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연극에서 이야기 줄거리와 그 말하고저 하는 사상— 여기서는 집단주의 사상—과를 혼돈 해서는 안됩니다.

그와 함께 흔히들 연극에는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의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문길이가 연극의 주인공이 되여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연극의 등장 인물의 한 사람인 복희 동무가 가장 정당하게 말 했습니다.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하고 이 말은 이 희곡을 상연하는 데서 아주 교훈적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다 주인공이여야 하며 다 같이 집단 생활에 충실한 소년단원 다운 품성을 가진 모범적인 인물들로 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지 희곡에 근거해서 이야기 해 봅시다.

희곡을 읽고 나면 가장 두두러 지는 대목이 문길이의 자기 비판이며 또 그가 자기 비판을 옳게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집단 생활에서는 자유주의를 부리지 말아야 하며 충실하게 하여야 모범적인 소년단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길이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 동기는 문길이의 개별적 행동인 것이 아니라 전체 크르쇼크원들의 행동과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동무들이 모두 남의 잘못을 추궁해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닭알 부화의 실패를 모두 자기 일처럼 책임을 느끼고 걱정하며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는 진실한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윤식이의 행동은 문길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윤식이는 집단에서 맡겨진 책임에 충실하고 공동 사업을 위해서는 비가 퍼붓는 캄캄한 밤'길을 무서워 하지 않고 송배전부까지 다녀와서는 병까지 들었지만 계속 집단의 일을 걱정해서 병든 몸으로도 다시 나왔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할 수 없이 잠간 눈 부친것까지도 자기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는 이 희곡에서는 지나간 시간에 있은 일로 되여 있지만 윤길이의 이 행동을 감동있게 전달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진이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영진이가 일지를 가지고 가서 선생님께서 다시 해 보라고 하셨을때 못 하겠다고 하고 돌아 옵니다.

그 리유는《솔직하지 못한 엘 우리 크르쇼크에서 없앤 다음에 다시 부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집단의 사상 일치가 있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소년단원 다운 사상입니다.

또한 문길이의 자기 비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남이의 로력적 열성과 협동 조합 아저씨들의 방조입니다.

기억이는 매우 거칠고 막우 말 하는 소년같이 보입니다. 기억이는 심지어 주먹질까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소년단원 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억이의 나쁜 성질 때문에서가 아니라 집단의 일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희와 춘자의 안타까운 심정도 역시 크르쇼크 사업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전체 크르쇼크원들의 성실한 집단주의 사상에서 우러 나오는 행동이 문길 동무의 잘못을 시정해 주는 진정한 동기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연극에서 무엇을 주되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하게는 집단 생활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락후한 동무가 있드래도 집단 생활 속에서 시정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연극 마지막 부분은 아름답게 되여야 합니다.

잘못을 뉘우친 문길이에 대한 크르쇼크 전체 동무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행실을 미워하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에 의거해서 성장하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진정한 모습이며 또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극이 잘 되였는가 못 되였는가는 희곡의 사상이 옳게 전달 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희곡 상연에서도 집단주의 사상으로 동무들을 교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하다면 훌륭한 연극이 될 것입니다.

연극을 하는 방법보다 이것을 매우 강조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연극을 실제 꾸밀 때 주의해야 할 점만을 더 이야기 하렵니다.

우선 연극을 하는데 굉장하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교실 한 구석에서라도 (장치가 없이 실제 교실을 리용해도 이 연극은 될 수 있다) 진실한 연극을 만들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극을 해 보이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희곡을 리해하고 그 내용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며 그의 모범을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연극을 할 때는 개인의 재간을 보이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어떤 연극 속에 인물을 만든다고 생각지 말고 자기가 당한 일처럼 생각하면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떤 동무들은 공연히 지나치게 과장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때로 희곡을 딴데로 끌고 가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 희곡에서 기억이나 수남이의 행동을 봅시다. 어떻게 될 것인가, 미욱한 애, 바보 같은 애가 될 것이고 남을 욕질만 하는 애가 될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하게는 모두가 일치하게 희곡의 사상을 옳게 전달하자는 목적에서 협조하며 행동을 단합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연극을 한다는 것은 연극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사상으로 자기를 준비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김책시 쌍화 중학교
6 분단 차 용해

깊고 깊은 산'골짝에
사슴과 여우가
한 근처에 살았다네

교활한 여우는
착한 사슴 꾀여 내여
집일도 시키고
굴도 캐오게하고
언제나 부려 먹었다네

하루는 사슴에게
불행이 생겼다네
바위 하나 굴러 내려
사슴네 집이 기울어 졌네

—여우야 나를 좀 도와주렴—
착한 사슴은 애원했네
그런데 그런데 여우 서방은
—흥! 낮잠도 못자게 굴어—
하고는 모른체 낮잠만 쿨쿨,

할수없이 사슴은
토끼한테 달려 갔네
—토끼야 토끼야 나를좀 도와 주렴
기울어져 가는 우리집
제대로 세워주렴—

—그거 야단 났구나
얼른 빨리 달려가
곰 아저씨 대려다
본래대로 아담하게
기둥'대도 밀쳐놓자—

어기영 치기영
벌써 집은 제대로
바위돌도 굴러내고
아담하게 사슴집
꾸려 졌다네

낮잠 한참 자고난 여우
점심 고기 구어 먹다
불이 났네, 불이 났네
여우집에 불이 났네,

—아이구 사슴아
저불 좀 꺼 주렴—
여우는 눈물 뚝뚝
사슴에게 애원했네

여우에게 속혀 온 착한 사슴은
이제는 두번다시 속지 않으려
야단치는 여우에게 말했네

—미련한 여우야
남의 불행을 본체만체하다
제 급한때면 야단치는
너는 다시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함을
언제나 똑똑히 알아야 한다.—

숨박꼭질

이 유희는 물에서 자맥질을 하면서 노는 유희이다.

〔유희전에 준비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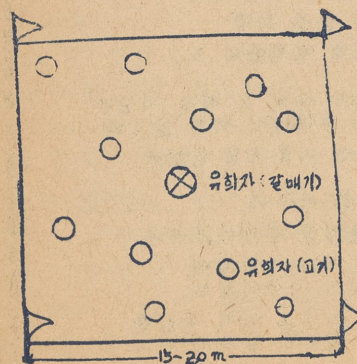
유희장은 물 깊이가 가슴 정도 치며 바닥이 모래로써 웅덩이가 없는 평평한 안전한 곳을 택하며 그림과 같이 기'발로 한 면의 길이가 16~20M의 네모난 곳의 모서리를 정하고 이 구역을 유희장으로 한다.

〔노는 사람들의 편 가르기〕

유희할 때 그중의 한 사람은 갈매기가 되고 나머지 모든 동무들은 고기로 된다. 갈매기를 정하는 방법은 《돌과 보》 또는 기타의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노는 방법〕

유희는 심판이 《시작》하는 신호에 의하여 갈매기가 고기를 잡아야 한다.

갈매기는 고기들을 잡기 위하여 달리거나 헤엄을 치거나 물 속을 기거나 하여 고기에 다가가서 그를 붙잡는다.

고기들은 갈매기에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역시 달리거나 헤염을 쳐 달아나거나 자맥질을 하거나 한다.

갈매기는 물 속으로 들어간 고기를 잡지 못한다.

갈매기에게 붙잡힌 고기는 새로운 갈매기로 바뀌여지며 갈매기는 고기가 되여 달아나도록 한다. 이때 새로된 갈매기는 한 손을 높이 들어 《내가 갈매기》《붙잡아도 좋으냐》하고 소리를 웨친다. 이때 고기들이 《좋다》고 대답을 하면 새로운 갈매기는 고기를 붙잡기 시작한다. 유희는 이렇게 갈매기의 역을 바꿔가면서 논다.

고기가 된 유희자들은 한번도 갈매기에게 붙잡히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삼게된다.

〔물'속에서 놀때 주의할 점〕

① 유희장은 맑고 깨끗한 곳이여야 하며 물결이 빠르지 않은 곳이여야 한다.

② 유희자들은 물에 들어 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며 물 마찰을 충분히 하고 물에 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물 마찰은 세수를 하고 물로써 가슴 기타의 신체를 마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물에 들어 갈때 언제나 누구든지 지켜야 할 일이다.

③ 유희에서 유희자들이 유희장 계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규칙을 세워야 하며 유희 시간은 오래 끌지 않도록 할 것이다.

④ 유희자들이 자맥질을 할 때는 항상 눈을 감지 않도록 습관되여야 한다. 그러나 물이 흐린 경우에 있어서는 눈을 감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유희가 끝나면 다시 한번 몸을 맑은 물로써 씻고 수건으로 몸의 물을 닦고 옷을 입고 정리 운동을 하여야 한다.

먼저잡기

〔유희전에 준비할 일〕

유희장은 《그림》과 같이 직경 2M의 원을 그리고 이를 《다람쥐》 《코끼리》 《고양이》라고 써 있는 표를 노아두는 곳으로 삼는다.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각각 세 방향에 거리 8M 가량 되는 곳을 모서리로 하여 삼각형을 그리게 한다. 그리하여 삼각형의 각 면에 유희자들을 세운다.

유희의 기구로서는 길이 10 CM 정도 되는 비교적 두터운 마분지의 한 면에 《다람쥐》《코끼리》 《고양이》라고 글'자를 쓴 표를 준비한다.

〔노는 사람들의 편 가르기〕

유희 참가자들을 세 편으로 나누어 매개 편별로 번호를 부르게 하며 유희자들은 자기의 번호를 외여 두도록 한다.

유희자들은 《그림》과 같이 서게한다.

〔노는 방법〕

유희는 심판에 의하여 순서로 또는 불규칙하게 번호를 부르게 하여 시작된다.

번호를 불리운 해당 유희자들 매개 편에서의 한 명씩의 유희자들(례를 들어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의 유희자들)은 재빨리 표가 놓인 원으로 달려가 임의의 표를 하나 잡도록 한다. 그리하여 그가 잡은 표에 따라 그에 씌여 있는 대로 례를 들어 《고양이》면 고양이, 《다람쥐》면 다람쥐의 역을 놀되 《고양이》는 《코끼리》가 《코끼리》는 《다람쥐》가 《다람쥐》는 《고양이》가 서로 잡기를 한다.

유희는 먼저 잡은 편이 승리한 것으로 된다.

유희자들은 자기의 표에 씌여 있는 글씨를 상대편에게 미리 알려지지 않도록 하면서 상대편은 무엇인가를 재빨리 알아내여 행동을 취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희에서는 표를 잡기에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쓸 수 있다.

유희는 먼저 잡은 자만을 승리자로 한다. 그리하여 유희는 각 편별로 어느 편에 승리자가 많은 가에 의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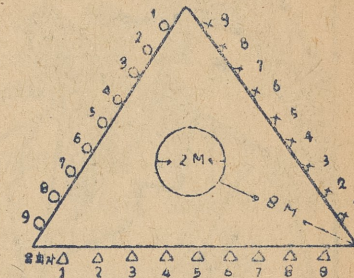
〔놀때 주의할 몇가지〕

1) 글자의 표는 반드시 원내에 엎어 놓아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표들은 크기가 같고 식별하기 어렵게 되여야 한다.

2) 유희자들은 원내에 침범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표를 잡기 위하여 또는 기타에 있어서 원내에로 손만을 내밀 수 있다.

3) 유희자들은 원으로 재빨리 달려가면서 표를 들춰볼 수도 있으며 다른 유희자들이 표를 잡기 전에 표를 바꿔 가질 수도 있다.

4) 서로 잡기는 상대편의 등을 치는 것으로써 잡는 것이 된다.

5) 유희에서 잡히지 않기 위하여 계선 밖으로 벗어났을 때 그는 잡힌 것으로 한다.

6) 누구나 먼저 상대편을 잡으면 그 유희자들의 경쟁은 끝난다. 유희는 다음 다른 유희자들로써 처음과 같이 표를 원내에 정비하여 놓고 계속한다.

평남 순천 제 1중학교 신 욱국

우리 기차 떠나요
　꽃차 떠나요
우리들의 손으로
　만든 《소년호》
기적을 울리며
　꽃차 떠나요

차야 차야 꽃차야
　씽씽 달리자
푸른 산 저밑까지
　어서 달리여
꽃피는 우리 마을
　살펴 보자야

밭들을 갈아 엎고
　모두 논 풀어
퐁퐁퐁 양수기
　끌어 올린 물
조합원들 신나서
　제초기 미네

우리 기차 씽—씽
　한곳에 가니
재로 지은 언덕밑
　토끼 아빠트
귀여운 토끼들이
　반기여 맞네

또한 굽이 돌아서
　한곳에 가니
수백마리 닭들이
　모이를 쫍고
차돌 같은 흰닭알
　산데미 같네

싸리군 문화 주택
　꼬마 발전소
자랑 많고 살기 좋은
　협동의 마을
칙칙 폭폭 달려라
　《소년호》 꽃차!

☆ ☆
☆

영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척척할아버지… 오냐 어서들 오너라. 이번엔 또 무슨 문제들을 가지고 왔니?

영수… 여름의 자연을 관찰하면서 느낀 문제들이야요.

척척할아버지… 그래 여름의 자연은 퍽 다양하고 아름답지, 어서 물어 봐라,

영수… 할아버지 그럼 저 하나 묻겠어요.

여름날 해가 쨍쨍 내려 쬐이면 어떤 물건이든지 그 테두리가 똑똑하게 보이지 않고 떨리여 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이나요.

척척할아버지… 아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몰라? 해가 몹시 쬐이는 날이면 지면의 공기가 몹시 더워질게 아니냐.

이 더워진 공기는 우로 올라 가면서 그 밀도가 변하며 따라서 공기의 흐름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단다. 이렇게 밀도가 다른 즉 굴절률이 다른 공기 층을 광선이 통과하여 나오기 때문에 모든 물체가 떨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란다.

영수… 할아버지 그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기와 대기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척척할아버지… 그것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다. 우선 대기층이 어떻게 구성되여 있는가를 설명하면 리해하기 쉬울 것이다.

대기층은 지구의 주위를 둘러 싸고 있는 모든 가스의 혼합물로서 구성되여 있단다.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층의 높이는 약 850km로 추측되고 있다.

이 대기층의 가장 아래 층을 우리는 대류권이라고 하는데 이 층의 대기를 공기라고 부른단다. 알겠니?

영수… 알겠어요. 그러니 공기는 대기층에서 가장 아래 층에 있는 대기이군요.

척척할아버지… 그렇단다.

영수… 그러면 이 공기층의 높이는 얼마나 되나요.

척척할아버지… 공기층을 이루는 대류권의 높이는 지구 표면의 지점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즉, 적도 부근에서는 17~18km이고 량 극 지대에서는 약 8km이며 우리가 사는 지대에서는 대략 11km 정도이란다. 그리고 같은 지방이라도 계절과 기타 요인들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는 생긴단다.

영세… **할아버지 이번엔 저 하나 묻겠어요. 소나기 오는 날 먼 곳에서 번개가 번쩍이면 우뢰 소리는 길게 우렁우렁 들려 오는데 가까이에서 번쩍일 때면 귀가 메여질 듯 쾅 소리가 나는 것은 무슨 까닭이나요.**

척척할아버지… 그것은 우뢰 소리가 반사되여 오는 동안의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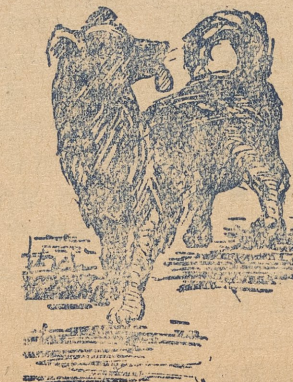
우뢰가 길게 우르렁거리는 것은 번개가 일어난 후 그 음파가 먼 곳에서 오는 도중에 구름과 수풀, 산'등 들에 반사되여 울리기 때문이고 가까이에서 오는 우뢰 소리는 그것이 아무 데도 반사되지 않고 직접 우리의 귀로 들려 오기 때문이다.

영세… 할아버지 그럼 번개가 일어난 곳까지의 거리를 알아 내는 방법은 없나요.

척척할아버지… 그건 간단한 방법으로 알 수 있지, 빛은 대단히 빨리 우리의 시각에 들어 오지만 소리는 1초 동안에 약 330m의 거리까지 전파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번개를 본 순간부터 우뢰 소리를 들은 때까지의 시간이 5초이라면 330×5는 1650m가 될 것이다.

영식… **할아버지, 몹시 더운 날이면 개는 혀를 내 뽑고 헐떡거리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일가요.**

척척할버지… 그것은 개가 혀로부터 침을 증발시킴으로써 더위에 높아진 체온을 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란다.

영식… 아니 체온을 내리게 하는데 하필 혀로부터 침을 증발시켜야 하나요.

척척할아버지… 허허… 들어 봐라, 개의 몸에는 한선(땀 나오는 선)이 다만 발'가락에만 있기 때문에 모진 더위에서 오는 땀을 내뿜을 도리가 없단다. 때문에 개는 입을 넓게 벌리고 혀로부터 침을 증발시킴으로써 피를 식히고 체온을 내리게 한단다.

영식… **할아버지 하나 더 묻겠어요. 개구리는 뭍에 나와서도 살고 또한 물 속에 들어 가서도 상당히 오래 동안 있는데 개구리는 어떻게 호흡하나요.**

척척할아버지… 바로 뭍에서도 살고 물 속에서도 살 수 있게 된 것이 개구리의 특징이란다. 때문에 학자들은 개구리를 《량서류》라고 분류한 것이다. 그럼 이제 그가 어떻게 호흡하는가를 이야기 하자.

개구리는 폐 호흡과 피부 호흡을 다 같이 진행한다. 뭍에 나와 있을 때는 주로 구강(입)뒤에 있는 후두(코'구멍)를 통하여 공기를 폐로 들여 쉰다. 그러나 개구리의 폐는 표면적이 작으므로 폐 호흡만으로는 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혈액에 공급하지 못한다. 때문에 개구리는 피부에 널리 분포되여 있는 혈관에 직접 피부로부터 산소를 흡수해 들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 속에 들어 가서는 다만 피부 호흡만 한다.

이렇게 피부 호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구리는 폐를 없애도 오래 동안 살 수 있게 된다.

정근… **할아버지 저는 《꼬마 식물 학자》예요, 그런데 무성한 삼림 속에서 자라난 나무는 그 줄기의 높은 부분에만 가지가 달려 있는데 평평한 장소에 섣피게 서 있는 나무들은 거의 줄기 전체에 가지가 달려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가요?**

척척할아버지… 무성한 삼림 속에서 자라는 나무는 우로 성장함에 따라서 그의

아래'가지들은 그늘 속에 들어 가게 되며 잎의 활동에 필요한 광선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아래'가지들은 점차로 떨어져서 없어지게된단다.

그러나 평평한 장소에서 설피게 자라는 나무에는 아래'가지의 잎에까지도 태양 광선이 충분히 비쳐지기 때문에 잎의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는 거란다.

정근…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것은 잎의 활동에 필요한 태양 광선이 제대로 비치는가에 달려 있군요.

척척할아버지… 그렇단다. 식물의 성장은 바로 잎에서 태양 광선을 받아 진행되는 동화 작용의 결과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 광선을 제대로 받고 못받는 것은 가지의 성장에도 결정적으로 관계되는 것이란다.

정근… 그럼 하나 더 묻겠어요. 소나무와 전나무는 모두 같은 침엽수들인데 왜 한곳에서는 같이 잘 성장하지 못할가요?

척척할아버지… 그것은 서로 반대되는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는 줄기 우로 높이 자라며 광선을 좋아 하는 식물이다. 그러나 전나무는 가지가 아래 부분에서부터 뻗으며 그늘을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소나무는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지만 전나무는 비옥한 토양과 충분한 습기를 요구한다.

때문에 높고 건조한 지대에서 소나무는 전나무보다 빨리 성장한다. 그러나 만일 비옥하고 습기 있는 곳에서는 전나무가 빨리 성장함으로 광선을 좋아하는 소나무에 그늘을 지운다. 이렇게 되면 전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는 어린 소나무는 말라 죽는다.

이와 같이 소나무와 전나무는 서로 생활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곳에서 같이 잘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정근… 알겠어요.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어요. 황철 나무'잎은 어째서 바람이 없는 날에도 흔들릴가요?

척척할아버지… 그것은 잎이 넓고 화경이 길기 때문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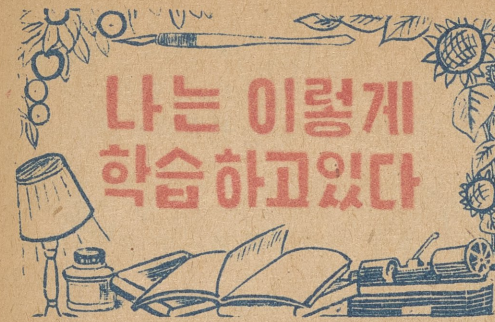
아무리 바람이 없는 고요한 날에도 항상 땅 우에는 공기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즉 따뜻한 공기 흐름은 우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흘러 내린다. 그런데 황철 나무'잎에는 가늘고 긴 화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 나무의 잎은 그에 따라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이다.

정호… 할아버지, 저 하나 묻겠어요. 여름날 하늘 높이 떠도는 소리개는 때때로 날개를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빙빙 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가요?

척척할아버지… 그것은 아주 흥미 있는 일이나 리유는 역시 간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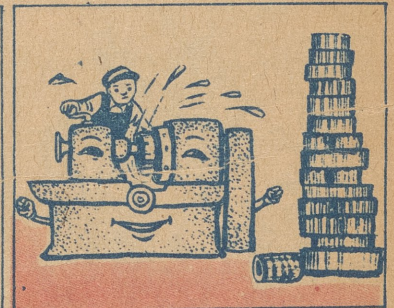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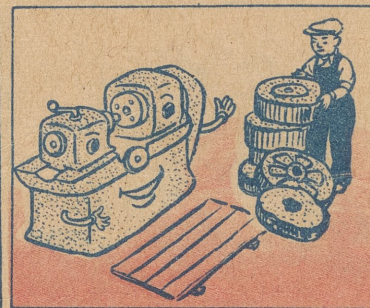
여름철 더운 날이면 땅에 가까운 층의 공기는 상층의 공기보다 훨신 더 더워진다. 따라서 더워진 공기는 우로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결과 대기 중에는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긴다. 바로 이러한 공기의 흐름이 소리개로 하여금 공중에 그대로 떠 있게 하며 때로는 날개를 움직이지 않은 채로 우로 올라갈 수 있게까지 한다.

정호… 잘 알았어요. 그럼 이번엔 이만 하고 다음번에 더 어려운 걸 묻기로 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척척할아버지… 오냐, 잘들 가거라.

자강도 희천 인민 학교 2분단
김 영 천

우리 반 동무들은 나를 《산수 박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가 아무리 힘든 문제라도 척척 풀어 내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3학년 1학기 때 까지만 해도 《산수 바보》였고 몹시 공부를 싫어 했습니다. 그러면 동무들이 어떻게 《바보》가 《박사》까지 되였는가 물을 것입니다. 나는 대답 대신에 어떻게 내가 학습하고 있는가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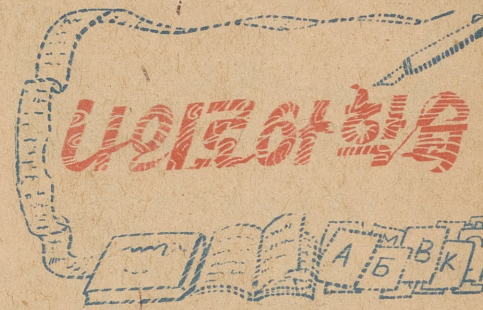
나는 첫째,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배운 다음 문제집에 있는 것 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나의 다른 과목의 학습과 생활에 결부시켜 응용 문제를 자체로 많이 만들어 풀었습니다. 례를 들면 회천에서 만경대까지 179 km 인데 하루에 0.8 km 씩 달리면 며칠 동안 걸리겠는가, 어느 때 어떤 도시를 지나는가 하는 문제를 풀고 계획적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분단이 담당한 청소 구역은 학교 전체 면적의 몇분의 일인가 하는 것도 계산하여 보고 청소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학교 시험 포전, 피마주, 해바라기 밭에서 생산한 것으로 얼마만한 기름이 나올 수 있고 혹은 외국에 수출하면 어떤 것을 얼마나 바꾸어 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모든 일에 관심도 높아 지고 책임도 더 무거워 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한 결과 차츰 산수에 취미도 붙고 성적이 높아 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인 자연, 지리, 력사, 국어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되였고 성적도 높아 졌습니다. 특히 혁명 전통 학습에서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수'자들을 많이 리용했기 때문에 이 수'자들을 죄다 외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 어려운 문제나 분수 계산, 응용 문제를 풀때 그림과 도표를 많이 리용하였

①부지런한 엄마 선반기는 매일 같이 쇠부치로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②하루는 더보 형님이 싱글벙글 웃으며 울퉁불퉁한 쇠부치들을 엄마 선반 옆에 날라 오며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아기 선반기를 만들어야지!》

③이 말에 엄마 선반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아기 선반을 만들게 된다는 데 저으기 신'바람이 났습니다. 엄마 선반은 윙윙 돌아 가며 아기 선반을 깎기 시작했지요.

습니다. 산수에서 도표를 배운 후 신문에 나오는 수'자, 서로 대비하는 수'자는 모두 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림을 그려서 문제도 풀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분수 응용 문제 계산은 그림을 그려서 풀어 보았더니 훨신 헐하고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눈에 그 문제를 리해하는데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째로, 우리들은 여럿이 모여 놀때나 반에서 공부할 때는 《산수 유희》를 즐겨 놀았습니다. 례를 들면 《카드 놀이》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도람프 놀이》 같이 종이에 적당한 수'자를 써 넣은 것을 똑같이 나누어 가진 다음 나머지는 바닥에 깔고 가갑 승제에 관계 없이 자기 손에 있는 수'자의 답이 될 수'자가 바닥에 있으면 먼저 계산하여 맞춘 동무가 그것을 가집니다. 이렇게 하여 《카드》를 많이 가진 동무가 이기게 됩니다. 또 누구든지 간단한 공식, 정리, 틀리기 쉬운 명수 사칙 같은 문제를 내고 먼저 대답할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산 계산을 도와주었고 사칙 공식을 확실히 리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방법을 분단 동무들에게 보급한 결과 이제는 모든 동무들이 《박사》가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지금 우리 분단은 모두가 전 과목에 최우등생이 되였습니다.

평양시 외성 고급 중학교 대 11분단 박 정옥

나는 작년 9월에 초급반 1학년에 입학하여 로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를 처음 배우게 되였을 때 고급반에서 공부하는 나의 언니는 외국어를 공부하자면 항상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그래 나는 처음 글자를 외우기 시작할 때부터 읽고, 쓰고, 외우고 하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얼마 오래지 않아 나는 선생님이 불러 주는 글자를 자유롭게 받아 쓸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로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나는 덮어 놓고 외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점차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먼저 단어를 외우면서 그 단어가 어떤 조선 말과 비슷한가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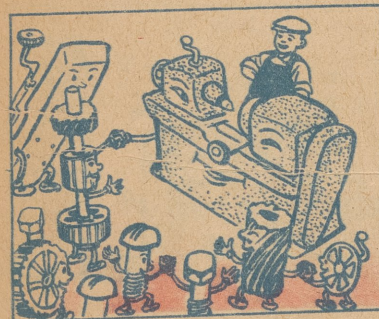
례를 들면 《пол》 로어로 들판이라는 단어는 조선 말로 우리가 가지고 노는 《뽈》이라고 생각하며 암송하는 것이 머리에 빨리 들어 오고 쉽게 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아주 같은 말은 아니라도 조선 말과 비슷한 점만 있으면 비교하여 외우는 것이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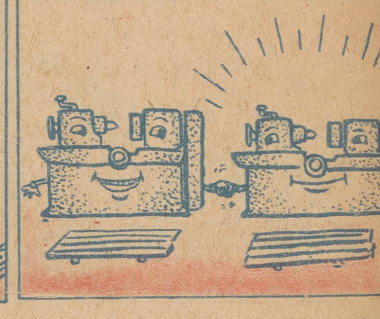
또한 동무들과 이야기할 때, 집에 돌아가서 언니들과 이야기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해 보군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도 항상 로어로 불러 보군했습니다. 기타 단문 짓기도 꾸준히 하였고 로어 단어로 글자 맞춤 딱지를 만들어 가지고 반 동무들이나 언니들과 같이 놀면서 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학과에서 배우는 단어 외에 새로운 단어를 매일 2개씩 더 외우기에 노력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어려운 문법이나 약간씩 모르는 단어를 물으면서 쉬운 쏘련 동화집을 읽게까지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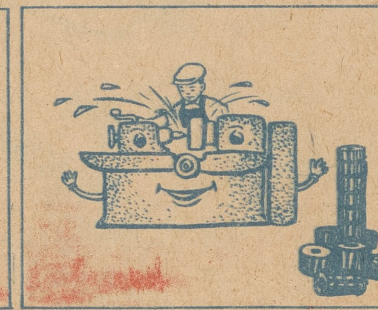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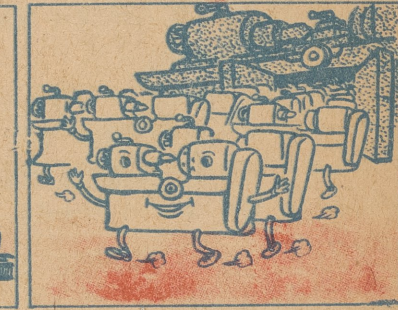
평북 수풍 중학교 16분단 강 택은

앞뜨락 깨끗이 쓸고
체조하고 숙제를 푸는데
그제사 늦잠잔 해'님이
빨간 얼굴 살며시 내밀어요.

해'님은 벙글벙글 웃으며
몸과 마음 튼튼히 다지고
학과학습 더 잘하여
우리 나라 좋은 나라 일'군되라고
해'님은 칭찬하며 방긋 웃어요.

④날이 가고 달이 지나 두 달이 되였습니다. 그 동안 엄마 선반은 아기 선반의 몸뚱이들을 수두룩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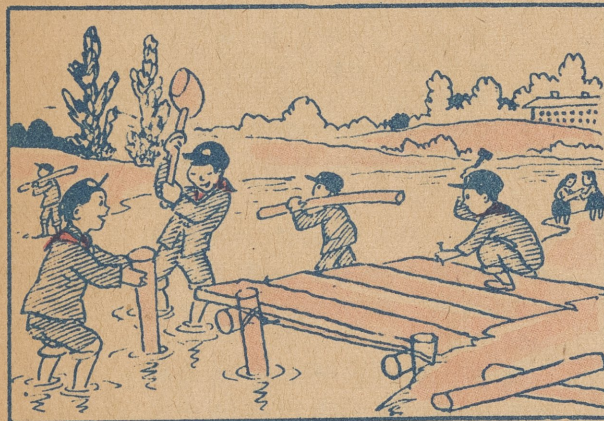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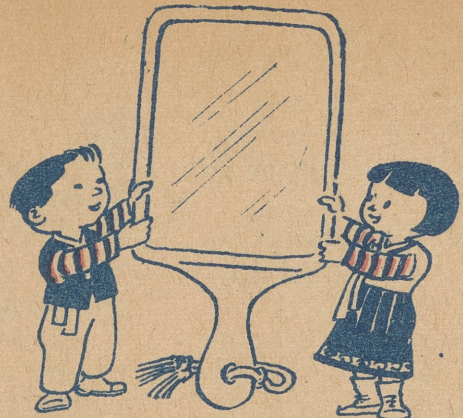
⑤하루는 세명의 조립공 아저씨들이 엄마 선반이 깎아 놓은 아기 선반의 몸뚱이들을 떼꺽떼꺽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⑥다음 날이였습니다. 엄마 선반 옆에는 몸뚱이가 엄마와 꼭 같은 아기 선반이 새롭게 놓여졌습니다.

아기 선반은 엄마 선반에게 말했지요. 《엄마 이젠 나두 엄마 처럼 일할래요.》

⑦이날부터 아기 선반은 민청원 뎌보 형님이 또 맡아 돌리게 되였습니다. 형님은 첫 일을 시작하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터 아기 선반이 또 새로운 아기 선반을 낳도록 해야지.》

⑧이 말을 들은 아기 선반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답니다. 아기 선반은 엄마 선반의 솜씨를 따라 또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⑨엄마 선반과 아기 선반은 서로 뒤질세라 팔다리를 놀리며 일했습니다.

엄마는 다시 아기 선반을 낳고 아기선반은 또다시 아기 선반을 낳았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숫한 선반기들이 자꾸만 늘어 가게 되였지요.

행동의 거울

1. 기특한 일

지금 이 거울에는 넓이 40m나 되는 큰 내'가에 다리를 놓고 있는 소년단원들의 기특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가에는 몇개의 돌을 가져다 놓은 징검 다리가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단 모임에서 의논하고 이 내'가에 다리를 놓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평산 중학교 대 5분단 동무들입니다.

2. 《익조 사냥'군》

동무들! 거울에 비친 《익조 사냥'군》을 보세요, 이는 신의주 교원 대학 부속 중학교 대 1학년 최 명욱 동무랍니다.

그는 때때로 학교에는 가지 않고 수풀 우거진 남송 공원에 새 사냥을 나오군 한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여러번 타일렀지만 명욱 동무는 여전히 들은척 하지 않고 새 사냥에만 정신을 팔고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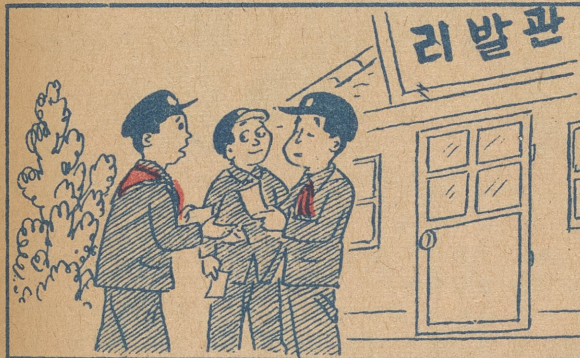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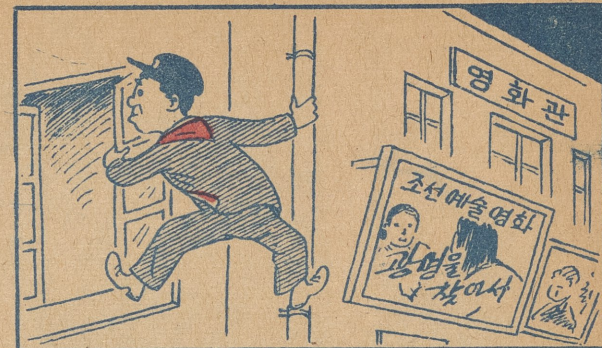
3. 참을 수 없는 일!

소년단원 동무들! 거울에 비친 황주군 흑교 중학교 대 2분단 김 세웅 동무를 보십시요, 그는 길'가에서 만난 인민반 선생님들에겐 이렇게 인사도 없이 슬쩍 지나군 한답니다.

인민반 선생님들에겐 인사 하기가 째째하다나요. 동무들! 세웅 동무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4. 《도마뱀》

거울에는 지금 영화관 담'벽을 《도마뱀》 처럼 기여 올라 몰래 넘어 들어 가는 사리원 5중 학교 대 1학년 박 봉규 동무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동무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5. 《되거리'군》

거울에 비친 동무들은 함흥 사전 부속 인민학교 대 2학년 최 성구 동무와 오 운호. 배 호근 동무들입니다.

최 성구 동무는 자기 아버지네 직장에 가서 종업원 가족들에게 5전씩에 파는 리발권을 사다가 지금 두 동무에게 10전씩 받고 팔고 있습니다.

사는 동무들은 그래도 눅다면서 사고 파는 동무는 5전씩 리익 보는 재미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크나 작으나 간에 옛날 장사'군들이 하던 행동과 다름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다 같이 이런 행동을 미워합시다.

6. 《비겁한 도적》

거울에 비친 동무는 의주 원화 중학교 3학년 길 창갑 동무입니다.

그는 지금 군 도서관장 아저씨로부터 톡톡히 책망을 듣고 있는 판입니다.

글쎄 도서관에서 읽던 책을 몰래 훔쳐 가지고 나가다 들켰으니까요.

동무들 생각해 보세요. 소년단원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이게 어디 될 말입니까.

7. 아름다운 행동

거울에는 영흥군 순안 중학교 대 2학년 박 명자 동무의 아름다운 행동이 비쳤습니다.

명자 동무는 학교에 갔다 돌아 오는 길에서 손시계 (뽀베다)와 지갑에 든 돈 89원을 얻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신분증도 들어 있었습니다.

물건을 얻어 든 명자는 순간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이걸 잃은 임자는 얼마나 애타하실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그 길로 학교에 달려가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곧 임자에게 물건을 찾아 드렸습니다.

명자 동무의 이 아름답고 정직한 행동을 찬양하여 물건 임자는 학교에 감사장까지 보내 왔습니다.

로케트 려행 (11)

소년단원 동무들! 지금 나의 로케트는 동남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을 거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령토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려행에서는 주로 동서 두 독일의 여러 지방을 날으면서 판이한 두 세계에서 생활하는 이 나라 인민들과 소년들의 생활 소식을 전해 드리렵니다.

1. 여기는 오데르 강 기슭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근로자들의 문화 휴식터랍니다. 이곳 쓰딸린 명칭 야금 콤비나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1주일에 3일은 7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즐긴답니다.

나는 일터에서 돌아 온 아버지와 함께 유쾌히 공원을 산보하는 한 삐오네르와 만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산보하는 것을 매일의 유쾌한 일과로 하고 있답니다.

2. 오데르 지방을 떠나 로케트는 이 나라 북부 빨찍해 연안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는 한창 이 나라 삐오네르들의 바다'가 야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위생 문화 오락 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진 이곳 야영지에서 삐오네르들은 해마다 이렇게 여름의 한때를 즐겁게 보낸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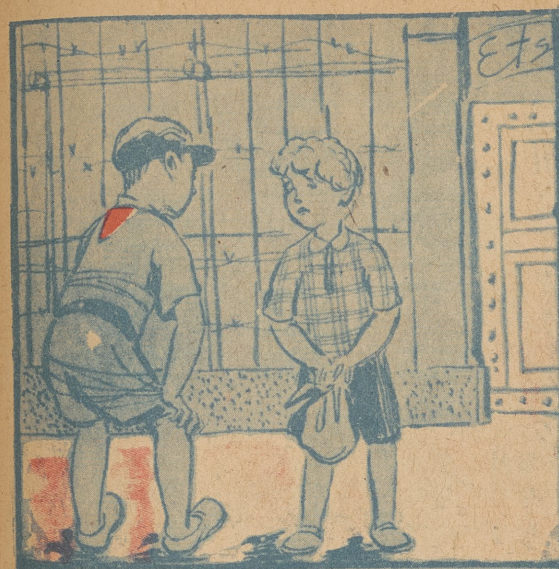
이제 이곳 야영이 끝나면 이들은 또 야영 기차를 타고 계속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명승 고적지들에 려행을 떠납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입니까?

3. 라이프찌히 거리에 이른 나는 무엇보다 먼저 이곳 라이프찌히 종합 대학을 찾아 갔습니다.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이 대학은 실로 과학 문화의 전당이 였습니다.

나는 벨리샤 라고 부르는 삐오네르 동무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대학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 등을 자세히 견학했습니다. 바로 이 전당에서 젊은 대학생 형님들은 마음껏 과학 기술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4. 여기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 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거리는 아직도 미제를 선두로 하는 서부 렬강들의 분렬 정책에 의하여 서부 베를린과 동부 베를린으로 갈려 있지 않겠어요.

동부 베를린과 서부 베를린은 서로 판이한 두 세상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수도인 동부 베를린에서는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평화 건설이 눈부시게 진행되고 있으나 바로 눈 앞에 바라 보이는 서부 베를린은 침략자들의 발굽음 소리만 날로 높아 가고 있습니다.

5. 여기는 서부 독일 루르 지방에서도 중요한 공업 도시인 엣쎈 거리입니다.

나는 이곳 군수 공장 정문에서 서성거리고 서 있는 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애, 너희들은 왜 여기와 이러구 서 있니?》

《우린 일자리를 구하려 왔단다.》

이곳 서부독일 로동자들과 어린이들은 미국 독점 자본가들과, 그의 예속 밑에서 다시 재생한 이 나라 자본가들의 2중 착취를 받으면서 하루에도 15～16 시간의 고된 로동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6. 루르 지방을 떠난 나는 다시 라인강 하류에 이르렀습니다.

《애, 넌 여기서 무얼 하니?》

《난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다 돌아가신 후 할 수 없이 여기서 또 일하고 있단다.》

7. 여기는 서부 독일에서도 문화 도시라고 불리우는 뮌헨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거리에서는 학원의 자유와 《징병 소집령》을 반대해 나선 이곳 청년 학생들을 위협하며 경찰 테로가 날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청년 학생들의 투쟁은 계속되였습니다. 그 대렬 속에는 나어린 소년들도 한몫 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님들을 도와 골목 마다에 삐라와 포스타들을 뿌리며 돌아 가고 있었습니다.

8. 함부르그 거리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거리에서는 긴 자동차 대렬과 그 뒤를 련달아 선 수 많은 군중들의 시위 행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위 군중들은 서부 독일에 대한 미제의 군사화 정책을 반대하며 아데나우어 정부의 새 전쟁 도발 책동을 규탄하면서 동서 독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코도 없고 손발도 없으며 수염도 없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기계의 할아버지》라고 부른 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기계든지 다 만들수 있어요.

① 우리의 이름은 무엇이며 ② 금년에 우리 나라에서 우리 자손들을 불쿠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③ 그리고 우리 친척들의 이름 세개 이상을 대답해 보세요.

5호 현상 문제 답

4가치를 떼 내여 20가치로 할 경우

4가치를 더 넣어 28가치로 할 경우

당선자

평양 류성 중학교 박 팔양
평양 남산 고급 중학교 한 혜자
평남 숙천군 창동 제 2 인민 학교 정 순조
평남 개천군 삼봉 중학교 김 도선
평북 철산군 리화 중학교 리 경식
평북 운전군 운전 중학교 김 장원
황남 벽성군 벽성 초등학원 정 연호
황남 청단군 영산 중학교 안 학열
황북 황주군 광천 중학교 김 기숙
황북 린산군 련풍 중학교 신 순식
함남 영흥군 룡흥 중학교 김 정일
함남 광천군 대흥 인민 학교 홍 옥자
함북 영안군 영안 초등 학원 김 철웅
함북 종성군 운암 중학교 김 세웅
강원도 고산군 석왕사 중학교 황 미자
강원도 천내군 신상 중학교 박 순호
자강도 초산군 무학 중학교 김 순화
자강도 전천군 장림 중학교 김 복순
개성시 판문군 판문 인민학교 송 병수

편집위원 김 주현 (주필) 강 효순 림 홍은 박 응호 송 정우 정 래선 조 순형

1959년 7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9년 7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9년 제 7호 (총 117호)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4192 값 25 전 150,000부 발행

춤추는 가로수

송 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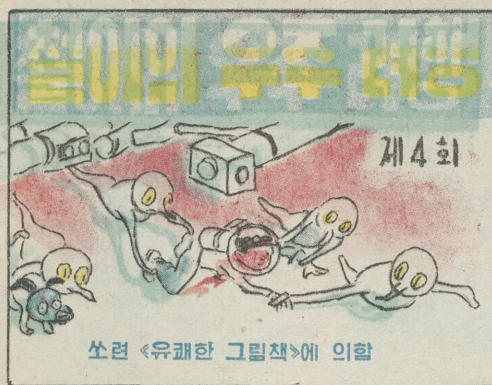
오늘은 외할머니 평양 구경 오신날
순이 영이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앞장서 나선 아빠트 거리,

《야, 집들두 굉장하구…
그 나무들이 좋기두하다》
할머니 몇번이나 하시는 말씀—

《할머니 이건…
우리들 소년 록화 근위대원들이
정성껏 가꾸는 나무들예요.》

누나의 자랑 끝도 나기전에
할머니께 알리는 영이의 자랑,
《할머니, 아동공원부터 가자요
우리들이 가꾼 꽃밭들에
백일홍 채송화가 활짝 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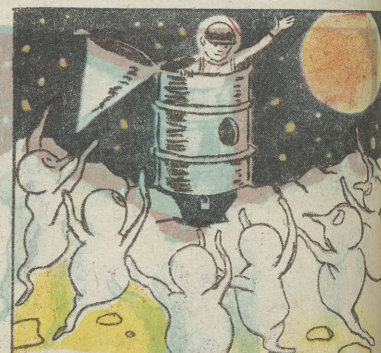
《에구나들 용쿠나 어서 가보자!》
할머니 벙글벙글 웃으시는 거리
가로수도 너울너울 춤춰 반기네

부드럽고 시원한 푸른 바람이
할머니 꽃밭 구경 모시고 가는
순이, 영이 붉은 넥타이 어루만져 주네.

(1) 철이는 마치 적은 로케트처럼 꼬리로 까스를 뿜는 달 사람들에게 끌려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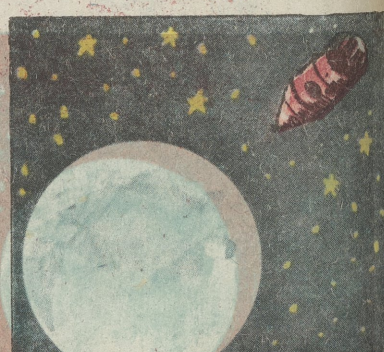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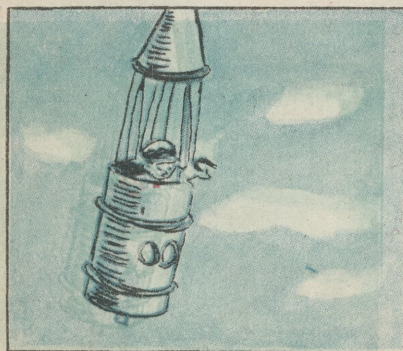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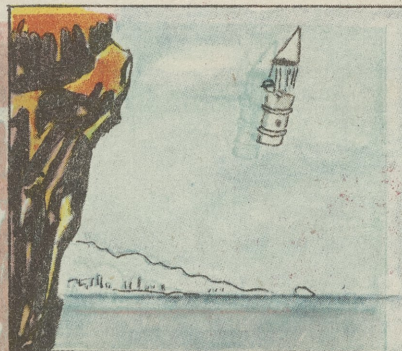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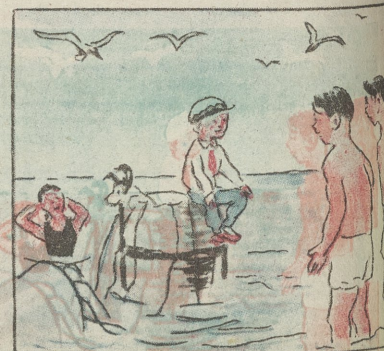
(2) 철이— 우리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달 나라 우두머리— 너는 어데서 왔느냐?

(3) 철이— 이것은 우리들이 사는 지구의 지도입니다.

(4) 철이가 준 그림 책을 달 나라 사람들은 재미있게 보고 있다.

(5) 달 나라 사람— 이것이면 지구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철이—참 감사합니다.

(6) 철이— 안녕히 계십시요.
달 나라 사람— 우리들의 인사를 전해 주시요.

(7) 철이— 잘 있으라 달 나라여!
우리는 집으로 간다.

(8) 철이는 또다시 새로운 우주 려행을 생각하고 있다.

(9) 어느듯 철이가 탄 로케트는 지구 가까이 왔다.

(10) 철이가 탄 로케트는 락하산처럼 변하여 천천히 내렸다.

(11) 철이— 야! 오래간만에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치구나…
철이가 탄 로케트는 바다에 내렸다.

(12) —너의 우주 려행을 축하한다.
철이—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철이의 우주 려행은 끝났다.